



「2010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동네만들기 지원센터

사 간 망 루 ②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2010 프로젝트북
동네만들기 지원센터 '사랑마루 2'

발행인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편집인 하동근
기획총괄 박승현
기획진행 김지훈
발행처 성남문화재단
www.sncf.or.kr / www.snart.or.kr

발행일 2011. 2

글 이초영
사진 이초영 김소연 이상훈 박영

디자인 디자인좋은날 / 김영아
인쇄 상원인쇄

©성남문화재단



2010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동네만들기 지원센터

사랑
마루 2



CONTENTS

프로젝트 북을 펴내며 • 8
여는 시 • 9
사업소개 • 10
각 동네별 소개 • 13
사랑마루 2010년 월별 사업진행상황 요약 • 16

I. 동네 한 바퀴 - 동네에서 주체찾기 • 25

왜 지역주민이어야 하는가? • 27
핵심멤버, 3명이면 시작할 수 있다 • 31
모임 공간은 꼭 필요하다 • 34
공간 운영에 대한 이슈 • 39
아줌마 Power • 40
관계를 맺으면서 풀어지는 오해 • 44
@현장스케치 I _ 언론에 비친 '사랑마루' • 46

II. 뭘 해야 재밌을까? ? - 콘텐츠 발굴 이야기 • 49

문화예술 동아리가 가진 의미 • 51
배움과 나눔의 결합 I _ 은행동 풀장환상 <문화나눔> • 55
배움과 나눔의 결합 II _ 상대원시장 원다방 <재미나는 시낭송> • 57
지역성을 담자 • 60
지역주민들을 '선생님' 으로 만든다 • 64
사업 참여자들의 입장에 서다 • 67
@현장스케치 II _ 은행동 풀장환상 '문화나눔' 과 '문화배움터' • 69

III. 연결해서 해볼까? ? - 지역 네트워크와 협력한 이야기 • 75

링크(Link) • 76
허브를 찾아라 • 77
본 사업의 동네별 네트워크 소개 • 78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힘, '관심' • 84
@현장스케치 III _ 삼평동, 그 뜻깊은 시작 • 85

IV. 왜 이 일 하세요? ? - 매개자와 활동가 이야기 • 95

매개자, 그 이름에 대하여 • 96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 • 98
문화예술 매개로 관계맺기 • 102
지역 활동가가 가진 장점 • 104
'동네만들기' 는 되어가는 과정 • 105
@현장스케치 IV _ 전주 재뎀마을 가던 날 • 108

V. '사랑마루' 그 외 활동 - 사랑마루의 또 다른 행적 • 119

2010 마을만들기 포럼 • 120
<마을만들기, 문제는 주체다! 그 방법론과 대안 찾기> • 124
수진동, 도촌동 이야기 책/온라인 뉴스레터 • 126
사랑마루 스텝들의 짧은 인사 • 127
@현장스케치 V _ 작은발표회 • 134





프로젝트북을 펴내며

동네 주민들의 마음속에 자라나는 소통의 씨앗 ‘사랑마루’

2005년도 성남문화재단은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라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성남의 동네 곳곳을 찾아가 주민들과의 만남을 시작으로 2006년부터 1단계 3개년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골목길 유형(태평4동), 아파트 유형(은행주공), 공단 기업유형(상대원공단), 시장 상가유형(상대원시장)등 유형별 사업을 필두로 2009년도부터는 2단계 5개년 사업으로서 동네만들기 지원센터 ‘사랑마루’가 동네와 동네를 연결하며 각 동네의 스스로의 주민역량으로 문화공동체가 꽃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단계 유형사업에서는 각 동네마다의 특성이 어떻게 살아나면서 성남이라는 도시에서 동네만들기가 가능할 것인가를 시범사업으로 펼쳤던 것이라면, 2단계는 그 성과가 체계적인 동네시스템으로 정착할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를 발굴해 내고 어떤 동네든지 동네의 자발적 역량으로 문화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데 초점이 있었습니다. 2010년 4월부터 시작된 동네만들기 지원센터 사랑마루의 2년차 활동은 크게 중앙사업과 마을단위사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중앙사업은 우리동네 문화공동체만들기 사업에 지금까지 동네에 결합하여 활동하였던 작가들의 활동성과를 계승하고 보다 체계적인 집행을 담당할 작가들로 지원센터 사랑마루를 구성하여 각 동네 간 원활한 소통을 위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사랑마루팀 구성인력 부족으로 인한 효율적 활동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활동의 영역을 넓혀가며 동네만들기지원센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문화예술매개자 양성교육은 2007년부터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꾸준히 활동한 동네별 주체 및 운영위원들에게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전망과 방향성을 고민하게하고, 사업집행 역량을 향상시켜 마을 공동체에서의 역할을 높이는데 주된 목적이 있었습니다. 도봉 시민회 이순임 강사의 지역사례 강의를 통해 같은 주무라는 조건 속에서 동네만들기 사업을 진행한 경험을 나눈 이 강좌에서 동네 운영위원들에게 공감과 자신감을 갖게 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며, 전주 한옥마을 기행은 각 동네에서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며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새롭게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어 보다 적극적 활동을 할 수 있는 동기 부여가 되었고, 전주라는 타 지역 마을 만들기의 다양한 사례를 체험하고 기행의 과정을 통해 각 동네의 운영위원과의 관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세계 동네만들기 사례 연구 및 동네만들기 포럼은 국내외 사례 연구를 통해 성남 지역 동네만들기 사업의 현실과 과제를 분석하고 새로운 전

망을 제시하는 자리였습니다. 심보선 교수님과 강운주 교수님을 필두로 6개월간의 연구기간을 거쳐 미국, 독일 등 다른 국가의 마을만들기 사례와 성남지역 마을 만들기 사업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성남 동네만들기의 현황과 과제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작은발표회에서는 그간 마을단위 사업동네인 태평동, 은행주공, 상대원시장, 도촌동, 삼평동 등 한 해동안의 활동과정을 공유하고 성과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작업을 묵묵하게 이끌어 주신 동네만들기 지원센터 사랑마루의 이상훈 총감독을 비롯한 팀원들과 작가분들께 모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네만들기 지원센터의 가시적 성과를 떠나 동네사업의 주체들은 주민들입니다. 동네별 사업을 통해 소통의 중요성은 늘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소통의 기본은 늘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작은 부분에서 출발합니다. 소통을 통해 서로 하나됨을 느낄 때 마을만들기 사업의 궁극적인 지점은 나 하나가 아닌 주민 모두가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출발점에서 시작한 동네만들기 지원센터의 일들이 모두를 행복하게 하기 위한 노력이기에 주민분들과 동네의 리더분들, 그리고 지역작가분들 모두가 앞으로도 더욱 보람있는 동네만들기를 펼쳐나가시길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성남문화재단

여는 시



마을 만들기 축제에 부쳐

장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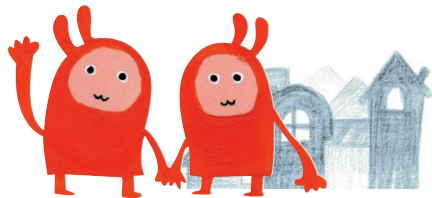
차들만 췌췌 소리치며 달리던 담 밑
함께 그려 놓은 벽화에서
웃음이 햇살처럼 쏟아지던 날
고운 잎 단풍 한 장
가을이 노릇노릇 익어가는 마을에
마음이 모여 강물처럼 흘렀다
벽을 뚫는 것은 결국
보드라운 물
물은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간다
고요한 달빛 아래
어두운 별빛 아래
때로는 눈 내리는 마을에서도
조금씩 조금씩 얼음 밑을 뚫고 간다
너와 내 마음이 묶인
우리라는 울타리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며 사는 동네
도란 도란 손잡고
푸른 물 넘실거릴 강을 향해 걷는다
아이들 고운 눈빛 햇살에 씻어
따뜻한 손바닥 안에 담으며

* 신나는방송국 원다방 방송국장 장미라님께서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위해 짓고
‘2010 사랑마루 작은발표회’에서 낭독해 주신 시입니다.

사업소개

문화와 예술을
나누는
문화공동체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성남문화재단의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은 내가 생활하는 동네에서, 우리동네 사람들과 문화예술을 함께 만들고 전파하여 모두 행복한 동네가 되는 것을 꿈꾼다. 문화예술을 매개로 하여 ‘우리들만의 문화’를 만들어보자는 의미인 문화공동체는 생활 영역 안에서 문화와 예술로 하나되자는 의미도 함축하고 있다. 생활 영역 안에서 접할 수 있는 여러 참여형 문화예술 활동은 내 안의 창조성이 발현되는 경험을 통해 이웃간의 소통을 시작하고 매개하며 결속을 다지는 역할을 한다. 더 나아가 도시 속 파편화된 개인의 삶을 회복시켜 문화공동체에서 지역공동체로 시각을 넓히는데 더 큰 역할을 한다.

2006년 성남문화재단은 5대 정책사업을 세울 당시, 사업주체는 ‘시민’ 이어야 한다고 굳게 믿고 모든 사업의 중심에 ‘시민’을 두어 5대 정책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결시켰다. 그 중, 창조시민이 주축인 ‘사랑방문화클럽 네트워크 구축사업’과 행복한 우리 동네를 꿈꾸는 주민들이 주축인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이 두 축이 되어 5년간 꾸준히 사업이 진행되었다.

동네만들기
지원센터
‘사랑마루’

1단계 3개년 ‘시민주체 형성을 위한 시범사업’에서는 동네별 특징에 따라 골목길, 아파트, 시장, 상가, 공단 등 5개 유형으로 분류하여 각 유형별 대표 지역에서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 2006년 태평 4동 ‘예술, 태평동에서 노닐다’, 2007년 은행2동 은행주공 아파트 ‘폴장환상’과 상대원공단 ‘콩닥콩닥 예술공단’, 2008년 ‘원다방 사랑방 신나는 상대원시장’은 공공미술 영역과 주민참여형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동네별 특징의 따른 유형별 대표지역 프로젝트의 성과를 남기면서 2단계 핵심은 ‘동네만들기 지원센터’를 통해 각 동네별 마을만들기의 연계점을 확보하고, 통합적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는 각 동네의 문화예술을 매개로 한 공동체성 회복에 대한 시사점을 던져주었다.

2단계 5개년 ‘문화공동체 시스템 만들기’ 사업이 2009년부터 현재까지 한창 진행 중이다. 동네의 주인인 주민과 지역단체, 기관 등이 연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동네별 이슈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동네별 주체를 세우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3단계가 끝나는 2020년에는 ‘창조시민’이 주체가 되어서 만든 ‘행복한 창조도시 성남’의 모습을 갖출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2009년, 2010년 성남지역 예술가와 활동가, 연구자들이 주축이 된 ‘동네만들기 지원센터, 사랑마루’는 2단계 5개년의 사업목표인 ‘문화공동체 시스템 만들기’를 수행하기 위해 구성된 공동체 지원조직이다.

사랑마루가 하는 일은 첫째, 주민들이 동네의 중심주체로 설 수 있도록 돕는다. 둘째, 문화예술을 매개로 동네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능성 가진 일을 지원한다. 셋째, 커뮤니티 공간을 중심으로 창작활동을 지원한다. 넷째, 동네별 연계기관 및 단체, 인력들을 연결하여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도모한다. 다섯째, 동네별 이슈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법을 모색한다. 여섯째, 동네별 이야기를 발굴하여 더불어 사는 삶의 중요성을 알린다.

사랑마루의
2009년, 2010년

2009년 사랑마루는 태평4동 한울기자단, 은행동 풀장환상, 상대원시장 원다방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였고, 도촌동과 수진1동을 더해 총 5개동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태평4동과 상대원시장 원다방은 '주민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큰 힘을 기울였으며, 풀장환상의 경우 2년간 꾸준히 진행된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향후 문화공동체의 여러 형태를 고민했다. 수진1동의 경우, 하늘정원이라 불리는 옥상텃밭을 조성했고, 상습 쓰레기 투기지역에 화단을 만들었다. 도촌동 섬말사랑방은 지역성을 가미한 콘텐츠로 가족단위의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10가족을 모집, 운영위원회의 기초를 다졌다.

2010년 사랑마루는 위의 5개동과 삼평동을 더해 총 6개 동네에서 운영주체 발굴에 힘썼다. 그 결과, 상대원시장 원다방 운영위원회가 조직되었고, 운영위원회를 통해 원다방 후원회가 꾸려졌다. 도촌동 섬말사랑방은 20여 가족으로 확대되며 도촌동을 대표할만한 주민 주체로 우뚝 섰다. 특히 지역 내 여러 기관 및 단체와 네트워킹하여 스스로 축제를 기획하고 주최하는데 까지 이르렀으며 섬마을을 5단지506동 1층에 어린이 도서관 '섬말사랑방'을 개관하는데 핵심동력이 되었다.

은행동 풀장환상은 성남문화동화인 '넌실'을 이용하여 '문화나눔'을 진행하며 서로의 재주와 기술을 나누고 있다. 삼평동은 봇들마을과 백현마을, 보평초·중·고 학교까지 연계한 '나들이공원 예술제'를 열어 2010년의 작지만 소중한 출발을 알렸다.

'동네만들기 지원센터, 사랑마루'가 세운 최종목표는 주민 스스로가 문화공동체 주체로 서는데 있다. 앞으로 계속 살아갈 동네의 주체와 객체 모두 '동네 주민'들이고, 집 바깥인 동네로 어떻게 나오게 할 것인지, 어떻게 동기부여를 해야 할 것인가는 동네만들기 사업을 하는 모든 기관 및 조직, 사람들과 사랑마루의 영원한 숙제이자 과제일 것이다.

주민,
동네의
주체이자 객체

각 동네별 소개

은행주공 사랑방 '풀장환상'

2007년 아파트 유형의 대표사업으로 시작된 은행2동은 현재, 커뮤니티 공간인 '풀장환상'을 중심으로 문화배움터 강좌와 문화나눔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풀장환상'은 용도폐기된 은행주공 아파트 내의 풀장을 리모델링한 공간으로, 주민 모두가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살아났다. 2007년부터 이 곳에서 어린이 밴드와 어린이 품물, 한지 공예, 사진, 생태모임, 책 만들기 등의 많은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2010년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직접 작성한 기획서로 경기문화재단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문화배움터 강좌2개 프로그램 (성인밴드, 생태체험 및 미술수업)이 만들어져, 프로그램이 끝난 현재까지 자발적으로 모임을 갖고 계속 활동 중이다. 또 매주 금요일, 문화품앗이 '문화나눔'을 통해 각자가 가진 재능과 기술을 서로에게 가르치고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프로그램은 인형만들기, 퀼트, 뜨개질, 반찬 만들기 등 생활 속의 다양한 소재로 구성되었다. 이 외에도 성남 의료생활협동조합과 연계하여 주민들을 위한 무료 건강강좌를 진행하였고 봄, 가을에 두 차례 어린이 벼룩시장을 개최해 아파트 주민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행사도 마련했다.

상대원시장, 상대원 사랑방 '원다방'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상대원동에 공단이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그 주변부(現 상대원 시장)에 장터가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했다. 상대원시장은 현재 성남에서 남아있는 골목형 재래 시장 중에 한 곳이다.

30년간 시장 앞 삼거리를 지켰던 카페 '원다방'의 이름을 상징적으로 활용하여 2008년에 만든 '상대원 사랑방 원다방'은 재래시장 활성화와 주민, 상인들간의 화합을 위해 탄생되었다. 특히 '원다방'안에 라디오 방송국을 설치하면서 성남만이 아니라 전국 재래시장의 명물이 되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라디오 DJ 12명이 각종 소식을 알려주는데, 상인들은 사연과 신청곡을 종이에 적거나 전화로 신청한다.

4월부터 10월까지 매일 셋째주, 원다방이 주관하는 '작은음악회'가 시장길에서 열렸다. 특히 노래사랑 시간에는 시장상인, 상대원동 주민들, 단골손님들, 상대원 2,3동 주민자치센터 노래교실 회원들이 모두 무대에 서서 노래솜씨를 뽐냈다.

도촌동 '섬말사랑방'

2009년, '옛날옛날 우리섬말' 프로그램으로 시작된 섬말사랑방은 도촌초등학교에 다니는 어린이와 어머니로 이뤄진 10가족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도촌동 유적을 탐방한 후, 유적에 관련된 만들기와 그리기 체험으로 구성된 '옛날옛날 우리섬말'에 참여한 가족들은 프로그램이 종료된 뒤에도 모임을 유지하며 함께 공연과 전시회를 관람했다.

2010년 '섬말사랑방'은 20여 가족으로 확대되어 더욱 다양해진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어머니들이 스스로 강사가 된 비누공예와 어린이 동화연극, 가족들의 참여가 돋보인 탈춤과 생태탐험, 엄마,아빠들이 직접 인형을 만들고 공연까지 한 인형극까지 '우리가 사는 동네'에서 '우리 가족이 행복해지

는 방법', '우리 아이들이 잘 크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함께 고민했다.

섬말사랑방이 주최가 되어 봄과 여름, 어린이 벼룩시장이 2회 열었고, 10월 30일에는 '2010 섬마을 문화축제'를 개최했다. 도촌동 주민센터, 도촌초등학교, 지역아동센터, 도촌 YMCA, 신나는 상대원방송국 '원다방',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상인회와 연계하여 큰 동네잔치로 꾸몄다.

12월 4일, 섬마을 5단지 506동 1층에 어린이 도서관 '섬말사랑방'이 개관하였다. 5단지 입주자대표회의, 한울봉사회, 섬말사랑방, 사랑마루가 함께 마련하고 꾸민 공간으로, 도촌동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책을 읽을 수 있는 마루공간과 지역 주민들의 모임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공부방 공간으로 꾸며졌다.

삼평동 '나들이공원 예술제'

10월 30일, 삼평동 '나들이공원 예술제'가 열렸다. 백현마을과 봇들마을 주민들이 함께 준비한 예술제에서 동네 주민들로 구성된 13팀의 공연이 2시간 가량의 열띤 무대를 선사했고 공원 주변에는 약 40팀 이상이 참여한 어린이 벼룩시장도 함께 열려, 한층 더 축제 분위기를 돋웠다. 짧은 축제 준비기간에도 불구하고 축제가 열린다는 안내 리플릿을 본 어린이들이 자발적으로 친구, 가족들과 팀을 꾸려 축제 참가를 신청했다고 한다. 의미가 깊었던 첫 행사처럼 앞으로 두 번째, 세 번째로 이어질 예술제를 기대해 본다.

태평4동, 수진1동

'한울신문'과 '한울영상'의 지속적인 발행을 위해 후원회 조직에 힘썼으나 아직도 힘을 모으지 못한 안타까운 태평4동과 지역활동의 주체를 발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진동은 2011년, 지역 내 협력을 다시 모색 중이다.

사랑마루 2010년

월별 사업진행상황 요약



4월

태평동

- 후원회를 새롭게 조직 함

은행동 풀장환상

- 문화배움터 모집 시작 :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기획 및 구성
- 성남의료생협과 연계할 프로그램 구성 및 계획
- 성남주민생협과 함께 바른먹거리 강좌 진행
- 5월 15일, 봄맞이 어린이 벼룩시장 개최 결정

상대원시장
원다방

-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하여 4,5월 작은음악회는 개최하지 않음.
- 성남 방송고등학교 학생들 방송에 참여하기로 결정됨
- 경원대학교 방송국과 연계방안 찾기 위해서, 지도교수님과 만남
- 실무위원 회의에서 회칙 정리
- 5월에 계획된 DJ 워크숍 프로그램 준비 및 기획

도촌동
섬말사랑방

- 섬말사랑방 공간 마련을 위해 주민들이 3단지, 9단지 공간을 탐사
- 새날아동상담센터와 공간 사용에 대해 협의
- 탈춤 장소 협조 건으로 도촌초등학교 교장선생님과 만남
- 작은도서관 협회의 지원시스템 협의

수진동

- 탈춤 강사 이지산, 생태탐험 강사 김현주 섭외 완료
- 모든 프로그램 5월 마지막 주부터 시작하여 20차시로 구성됨
- LH공사와 연계방안, 지속적으로 추진

삼평동

- 보평초등학교 서길원 교장선생님과 만남 : 학교 중심의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에 대해 논의
- 학부모운영위원회와 만남

그외

- 생활문화 교육자 (매개자 교육) 준비과정을 상반기 준비해서 하반기 시행
- 동네별 스토리텔링 모임의 단초를 섬말사랑방 프로그램으로 시작하는 것을 협의

5월

태평동

- 4월 신문 발행 및 배포

은행동 풀장환상

- 문화배움터 수업 시작, 경기문화재단 교부신청 완료
- 성인밴드 월요일 오전 10~12시, 13명 참여 / 생태미술 수요일 오전 10~12시, 7명 참여
- 문화나눔 : 문화나눔 참여자는 문화통화 교육을 받기로 결정
- 2개월 단위로 강의 진행, 발도로프 인형 3주, 쿼트강좌 4주로 시작하기로 함
- 회원제로 듣고싶은 강의를 신청하는 방식을 진행, 재료비 30%는 자부담
- 5월 15일, 어린이 벼룩시장 개최 : 1년에 2회(상,하반기) 개최하기로 함



- 풀장환상 상근자 결정
- 의료생협 강좌 총 3차로 구성, (6월 3일 1차, 사상체질과 관리법 강의 예정)

상대원시장 원다방

- 방송고등학교 학생들, 금요일 '나도 DJ' 에 출연 중.
- 상인과의 소통을 위해 녹음기와 전화기를 구비, 설치하기로 함.
- DJ 워크숍 겸 교육, 6차 프로그램으로 진행
- 5월 19일 1차 성미산 공동체 이야기 & 성남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강사 유창복)
- 5월 24일 ~ 6월 1일까지 5차 진행 / 6월 중 KBS 방송국 견학 계획

도촌동 섬말사랑방

- 각 프로그램 진행상황 체크 및 교육장소 확정, 5월 20일까지 참여자 모집
- 주민대상 간담회 진행
- 스토리텔링 모임을 도촌동 소식지를 발간하는 기자단의 형식으로 팀을 꾸리는 것으로 변경
- 프로그램별 참여팀 : 총 29가족 신청
- 도서관 공간 협력을 위해 5단지와 만남

수진동

- 이야기 북 시작 : 20년 이상 살고 있는 주민 3명 추천.

그외

- 온라인 뉴스레터 발행 시작
- 세계 마을만들기 사례 포럼(강운주, 심보선 교수와 함께 연구)을 10월로 변경

6월

은행동 풀장환상

- 의료생협 강좌 : 6월 3일 1차, 사상체질과 관리법 강의. 참여자들 만족함
- 6월 11일부터 문화나눔 시작 (1차, 발도르프 인형 만들기 3주 과정, 총 9명 수강)

6월 29일부터 켈트 강좌 시작 (총 17명 신청)

- 문화배움터 참여자들에게 참여자 연락망 배포. 밴드의 경우, 풀장환상은 연습공간으로 활용

상대원시장 원다방

- 6월 5일, 재미나는 시낭송 팀이 남한산성에서 시 낭송회 개최
- 6월 11일, 작은음악회 개최

도촌동 섬말사랑방

-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임원 재구성, 정기모임 요일 및 시간 정함
- 스토리텔링 모임을 '동네소식지 알리미' 로 변경하여 홍보 시작하였으나 모집이 어려워서 보류
- 6월 26일, 오후 4시부터 9단지 앞 이왕이공원에서 벼룩시장 개최
- 20여 팀 참가, 분기별 1회 또는 2개월에 1회 진행 예정
- 도서관 공간을 위해 도촌동 원 주민(현재 자치위원)과 만났으나 비어있는 여러 건물들이 있 어도 장기적인 공간 협조는 어려울 것이라고 함
- 네이버 카페 섬마을 사랑방 (<http://cafe.naver.com/dochonlove>) 오픈
- 이야기 북 : 인터뷰이 섭외 추진

수진동

- 이야기 북 : 총 8명 인터뷰

삼평동

- 주민주체의 '삼평동 문화예술 위원회' (가칭)을 구성한 후, 10월경 공연 추진하기로 함

그외

- 세계 마을 만들기 포럼 : 주민 주체성에 초점 맞춰 문화예술을 이용한 마을 공동체 관련 사례를 찾아보기로 함
- 매개자 교육과정 : 우선 동네별 주체들이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기로 함. 7월 중 기획 마무리
- 뉴스레터 : 180여명 발송 완료.

7월

은행동 폴장환상

- 문화배움터 밴드, 생태미술 원활히 진행 중
- 문화나눔 : 2차 쿼트 강좌 이후 잠시 여름방학을 갖고 8월 20일에 3차 강좌 시작
방학기간 동안 어린이 특강을 준비해보자고 제안하여 8월 셋째주에 특강 진행 계획
- 의료생협 강좌 : 7월 1일 2차,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치료법 강의. 참여자들 만족

상대원시장 원다방

- 공간 계약기간 만료 후 구체적 대안 필요 : 자립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
- 7월 23일 작은음악회 개최

도촌동 섬말사랑방

- 각 강좌 수업 진행 중. 각 수업의 반장, 부반장 선출
- 벼룩시장의 이익금으로 '섬말사랑방' 티셔츠 제작하기로 함
다음 벼룩시장은 지역 내 다른 단체들과 함께 진행해보자고 도움말 주기
- 8월 내, 섬말사랑방 가족들 캠핑추진 중
- 춤을 좋아하는 어린이들이 많아서 어린이 대상 댄스동아리 구성 추진 (강사 섭외 등)

수진동

- 사업내용 및 추진일정에 대한 고민이 다시 필요.
- 첫째 주, 2009년에 만든 텃밭 및 화단의 상황을 보기 위해 수진동 답사

삼평동

- 보평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운영위원회를 준비하기로 함.

그외

- 매개자 교육과정 : 사랑마루 팀과 성남문화재단이 정한 목표 조정 필요.
1차 강의 후 현장방문(1박 2일)의 흐름, 총 2차 교육으로 기획.



8월

은행동 폴장환상

- 8월 13일 어린이대상 방학프로그램 1회 진행 : 생태 손수건 만들기 진행
- 8월 20일 문화나눔 3차 강좌 리본공예 진행 시작
- 벼룩시장과 함께 연결하여 전시회를 진행해보자는 의견 나옴

상대원시장 원다방

- 8월 20일 작은음악회 개최

도촌동 섬말사랑방

- 8월 11~12일 용인 고기리 캠핑장에서 섬말 가족 참여 캠핑
- 동화연극 : 5차, 8월 둘째주 부터 수업 시작
- 9월 11일 : 가을 어린이 벼룩시장 개최 예정
- 도서관 공간 : 5단지 입주자 대표회의와 만남

수진동

- 수진동 주민센터와 의논하여 올해 사업 새롭게 구상

그외

- 매개자 교육과정 : 1차 강의와 2차 타 지역사례 1박2일 방문으로 기획
타 지역사례로 전주 서신동 '문화공간 싹' 방문, 8월 31일 전주 사전 답사

9월

태평동

- 태평동 팀장의 건강상 문제로 태평동 한울기자단 후원회 재조직 보류

은행동 풀장환상

- 문화나눔 : 다과회 진행 후, 4주간 프로그램 결정 (수세미만들기, 밀반찬만들기, 뜨개질 등)
- 10월 16일 : 가을 어린이 벼룩시장 개최

상대원시장 원다방

- 9월 16일 : 상대원 3동 주민자치센터와 함께 음악회 진행 (민요, 실버댄스, 뽕리댄스 등)

도촌동 섬말사랑방

- 9월 11일 : 가을 어린이 벼룩시장 개최
체험프로그램 진행 예정 : 지끈으로 곤충만들기, 재활용품 인형만들기, 천연비누 만들기
- 도서관 공간 : 5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사용이 통과됨. 구체적인 기획안으로 협의
- 섬말 사랑방 전체 발표회 : 10월 30일로 계획

수진동

- 지난해 설치된 화단을 돌아본 결과, 보존이 잘 되어 있음

삼평동

- 공연일정을 10월 23일경으로 예정. 어린이 벼룩시장도 함께 진행하기로 함

그외

- 매개자 교육과정 : 1차 강의로 도봉시민회 활동을 꾸준히 한 이순임 님 섭외
2차 현장교육 프로그램 : 전주 서신동 '문화공간 싹' 채성태 대표 기획, 동네벽화 함께 그리기 기획

10월

은행동 풀장환상

- 10월 16일 : 어린이 벼룩시장 개최. 문화나눔 결과 작품 전시도 병행

상대원시장 원다방

- 성남시청 생활경제과 후원, 성남시 공동마케팅 지원사업 진행 추진 (복권, 김장나누기행사)
- 10월 15일 : 작은음악회는 '고마움' 을 테마로 삼아 풍성한 행사로 진행되었음

도촌동 섬말사랑방

- 5단지 506동 1층 공간 꾸미기 시작, 공간 인테리어할 작가들과 회의
- 10월 30일 : 2010섬마을 문화축제 개최
새날아동상담센터, 도촌 YMCA, 도촌지역아동센터에서 함께 공연에 참여함.

수진동

- 10월 6일 : 수진동 주민자치센터와 회의

삼평동

- 10월 6일 : '나들이 공원 문화제' 를 기획,준비할 보평초등학교 학부모운영위원회와 회의
- 10월 30일 : '나들이 공원 문화제' 에 벼룩시장은 약 40팀, 공연팀은 13팀 참여. 성황리에 마침.

그외

- 매개자 교육과정 : 총 28명 참여. 전반적으로 반응이 좋음.
- 세계 마을 만들기 사례 포럼 : 10월 14일 성남문화재단 컨퍼런스홀에서 개최
- 전체 5개동 연합 발표회 '작은 발표회' 개최일정 : 11월 13일

11월

은행동 풀장환상

- 문화나눔 지속적으로 진행
- 풀장환상 천장, 수도배관, 출입문 교체 등, 공사 완료

상대원시장 원다방

- 후원회 조직을 위해 전력을 기울임.
- 11월 한 달 동안 성남시 공동마케팅 지원사업 '복권' 행사 진행 (11월 22일 : 김장 나누기

사람찾아 동네 한 바퀴

동네에서 주체찾기

“다같이 돌아, 동네 한 바퀴~”
이 동요가 사랑마루에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사람을 찾자, 동네 한 바퀴”



‘사람찾아 동네 한 바퀴’에서는
동네사업을 하는 주체에 대한 이야기와
사랑마루가 동네에서 주체를 찾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그 비밀스러운 방법을 살짝 공개합니다.

행사 진행)

- 성남시 청소년지원센터와 함께 어린이 라디오교육 프로그램 진행
- 상인들과 함께하는 송년회 : 12월 9일 예정

수진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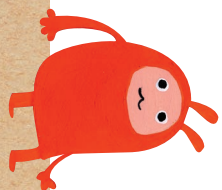
- 벤처빌딩 아래 골목을 중심으로 2011년 사업을 구상하는 것으로 마무리됨.

삼평동

- 어린이 도서관 및 공부방 인테리어 완료. 12월 4일 현판식 개최

그외

- 작은 발표회 : 11월 13일, 도촌동 주민센터 오후 1~4시
동네별 전시물 (은행동 : 생태 그림이 그려진 소품, 도촌동 : 인형 및 사진, 생태탐험 책 등)
동네별 공연 (원다방 : 시낭송, 뉴스 / 도촌동 : 동화연극)
- 이야기 북 : 수진동, 도촌동 이야기 북 원고 완성
- 동네 영상 : ‘동네’와 ‘사람’을 나눠서 진행
- 프로젝트 북 : 원고 작성



나는 2006년부터 성남문화재단과 인연을 맺고 사랑방문화클럽의 발전방안을 연구하며 성남 곳곳의 문화예술 동호회들을 만나러 다녔다. 그 결과 사랑방문화클럽의 시작부터 현재까지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었다. 이후 2009년과 2010년, 동네만들기 지원센터 '사랑마루'의 팀에 속해서 우리동네 문화공동체만들기 사업을 이끌고 있는 동네 주민들을 만나, 함께 수다를 떨고 밥을 먹으며 그렇게 2년을 지냈다.

지난 5년 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그 분들과 보다 나은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 선 어떻게 해야 좋을지 함께 이야기 나눴다. 조금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지금 내가 사는 이 곳에서 행복해지는 방법'에 대해서였다. 다시 말해, 나뿐 아니라 여기 모인 사람들 모두, 각자의 삶 속에서 즐거운 변화를 원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이다.

이 장에서는 함께 일할 파트너를 찾는다는 것, 그 인연을 오래오래 잘 이어간다는 것, 그 인연에서 파생되는 다른 인연들을 다독거리며 앞으로 함께 나아간다는 것에 대해 담아보려 한다. 역시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새로운 일을 만든다는 것, 참 멋진 일이다.



왜

지역 주민이 어야 하는가?

성남은 유난히 토박이들이 많다.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랑마루 팀의 대부분도 성남에서 나고 자랐다. 어릴 때부터 학교 선후배이기도 하고, 한 다리 건너면 다 아는 사이들이다. 이들은 20대 때, 성남 청년들이 즐길만한 문화를 만들어 보자는 의미에서, '청년대학'을 만들었다. 20대를 위한 주제별, 매체별 동아리 등을 만들어 각종 강좌와 성남청년문화제를 개최하며 성남 전역의 청년들과 함께 활동했다.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쪽** 성남에서 살고 있어요.

지금 우리집도 **상대원 시장** 윗동네예요.

제 아이도 저와 제 아내가 다녔던 학교를 다니고 있고,

한 번도 성남을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떠나서 살 것이라 생각해본 적도 없고요.

저에게 성남은 그야말로 **‘터’**입니다.”

(사랑마루 총감독 이상훈)

이처럼 성남 주민이자 활동가들은,

동네 일을 할 사람들은 당연히 주민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사업 초기에는 공공미술 영역의 외부작가들이 결합하여 상당한 성과는 있었으나,

그들은 프로젝트가 끝나면 성남을 떠났다.

그들이 떠나면서 공간을 유지하고,

프로그램을 지속해야 하는 운영 주체의 고민은 동네에 고스란히 남겨졌다.



풀장환상 운영위원장 강현희 님은

2007년의 '풀장환상'을 이렇게 기억했다.

“처음엔 우리가 모두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풀장환상의 프로그램을 프로젝트 팀이 다 짜서 들어왔는데, 성남이나, 은행동에 대한 기본 상식들이 부족해서 거의 일시적인 프로그램이 많았죠. 꾸준히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만 했죠. 게시판에 홍보물 붙여주는 것 같은 일이에요. 우리가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을 직접 했으면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따 라 서,

사랑마루는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동네 주민이 주체가 된 운영위원회 구성과 동네별 네트워크를 주요 과제로 삼아 열심히 활동했다.

“2009년 처음 시작한 도촌동의 경우,

처음부터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목적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야 함을 프로그램 속에 담았죠.

이전 다른 동네에서 꽤 오랜 시간, 노력해야 가능했던 활동주체 발굴을 처음부터 해보자는 생각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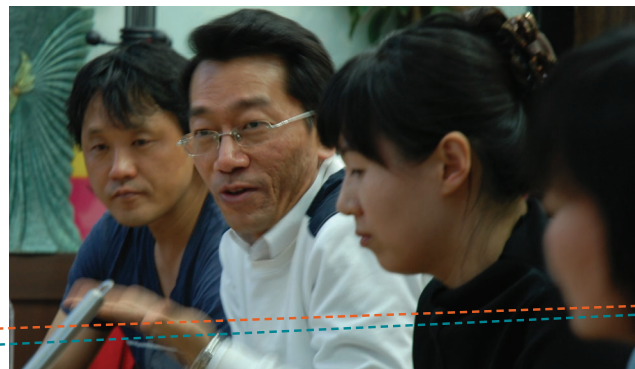
소수의 가족으로 집중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정성을 들였어요.

그 결과, 2010년도에 활동주체인 섬말사랑방이 우뚝 섰죠.

도촌동 섬말사랑방은 굉장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사랑마루 총감독 이상훈)

이렇듯 주민은 지역의 주체이자 생산자여야 한다. 지역의 일을 우리 모두의 일로 받아들이며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 한다. 그 곳을 잘 알고 있는 주민만큼 좋은 해결사는 없다.



핵심 멤버 3명이면
시작할 수 있다.

‘우리동네 문화공동체만들기’ 사업에서 제일 만형 격인 은행2동 은행주공아파트 ‘풀장환상’은 강현희, 이영란, 이경진 님을 주축으로 꾸준히 가동 중이다. 월별 행사를 준비하고, 아파트 내 게시판에 홍보하며, 모임공지 문자를 보내는 수고로움은 그녀들에게 이제 일상이 된지 오래다.

간략히 각자의 업무를 살펴보면 운영위원장 강현희 님은 풀장환상의 전체 운영 및 관리, 행사진행을 총괄하며 총무 이영란 님은 각종 회계 및 정산과 연락을 맡는다. 서기 이경진 님은 홍보일정 체크와 홍보물 작성 등을 담당한다.

또 다른 동네, 상대원시장 신나는 방송국 원다방의 실무위원장 박정숙 님은 원다방의 모든 행정을 도맡아 실무단위의 대표로서 활동 중이며 방송과 관련된 전반적인 운영 및 관리는 방송국장 장미라 님, 엔지니어 이길순 님, 두 분이 맡고 있다. 그 외, DJ 중 박신명, 박인자 님이 실무자를 도와서 라디오의 크고 작은 일을 함께 한다.

여기서 ‘3’이라는 숫자는
중요하다.

만약, 핵심멤버가 2명이면 1명이 완전히 그만두거나 불참하게 되면 나머지 1명에게 책임과 업무가 가중되어 버거울 수 있다. 하지만, 3명일 경우, 1명의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이번에 참여하지 못해도 남

은 2명에서 조금씩 더 나뉘 활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기로에 놓이거나, 실행에 대해서 망설여지는 순간에 ‘3명이 모이면 그 중에 스승이 있다’는 옛 말처럼 3명이면 현명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많은 숫자의 느슨한 개입보다 적은 숫자의 견고한 연대가 더욱 빛을 발한다.

만약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사업 규모에 따라 필요 적정인원 수는 달라질 것이다. 핵심멤버 외에 다른 멤버들이 유기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각자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일을 도맡아 책임 있게 진행 하면서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해체하는 형태가 서로에게 부담스럽지 않아 더 길게 사업을 도모할 수 있다. ‘풀장환상’의 경우, 생태수업 선생님 김현주 님과 미술선생님 하은영 님은 강사로서 참여하지만, 운영에 도움을 주는 숨은 손이다. 아울러 프로그램에 꾸준히 참여하는 고은주 님, 이번 년도부터 적극적으로 참여중인 문화나눔 여러분 들도 각자가 조금씩 일을 맡고 책임을 나눠가지며 함께 풀장환상을 꾸려가고 있다.

‘할 수 있는 만큼 하자.’ 운영위원장 강현희 님이 ‘풀장환상’ 프로젝트가 시작될 때부터 함께 한 1세대라면, 총무 이영란 님과 서기 이경진 님은 2009년 사업 때부터 참여하여 2010년에는 핵심 멤버로 함께 활동했다. 2006년, 2007년 프로젝트가 진행되었을 때는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다. 허나, 당시 본 사업의 운영주체였던 부녀회가 현재는 해산했고, 본업을 가지게 된 주부들은 활동이 뜸해졌다. 일하는 사람의 수가 줄어드니 각자가 할 일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애들을 돌봐야 하는 시간을 쪼개서 이 일을 하다보니 부담스러웠어요.**
아이들이 조금 더 컸다면 여유롭게 일할 수 있었을 텐데...
일단 제가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죠. 회의도 일주일에 1회로 정해져 있는데,
행사준비 하면 더 자주 만나야 했고... 생각지도 못한 시간을 할애해야 하니까 힘들었어요.”
(은행동 풀장환상 이영란)

조직의 규모가 점점 커질수록 해야 할 일은 많아진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조직이 커지거나 규모가 커지면, 그에 걸맞은 행사와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노력한다. 규모가 커진 만큼 일할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풀장환상의 경우, 핵심멤버가 줄어들수록 각자에게 가중되는 일과 일에 따른 피로도가 높아졌다. 그래서, 원칙을 세운 것이 ‘할 수 있는 만큼 하자’ 였다. ‘규모가 크다고 꼭 내실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내실은 있되 욕심부리지 말고,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마음 한 켠에 모두 가지게 되었다.

여기서 사랑마루에서 주목한 점은 두 가지였다.

첫번째,

동네사업을 하는 운영위원회 주민들도 이 곳에 즐기러 왔다는 점이다.

일만 남고, 즐겁지 않은 이 곳은 자연스레 몸과 마음이 멀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사랑마루의 역할을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돕는다.’로 삼았다.

그들이 일을 할 때 막히는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도와주는 것이 사랑마루의 몫이라 생각했다.

두번째,

그들이 모든 것을 결정하게 했다.

결정하는 과정에서 보다 나은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움말을 해주었고,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그 결정을 존중하고 활동을 지원했다.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주민들 스스로 주체로 서는데 큰 동력이 될 것이라 믿었다.

모임 공간은 꼭 필요하다

어릴 적, 우리집 골목 앞 시멘트 의자는 온 동네 사람들의 **쉼터**였다.

시장을 봐오던 윗동네 할머니가 **앉아서 쉬던 곳**,

건넌집 언니와 어스름해질 때까지 함께 **놀던 곳**,

나와 내 동생이 퇴근하는 엄마를 **기다리던 곳**,

그 곳은 동네 사람들의 **놀이터이자 사랑방**이었다.



‘참새가 방앗간 지나가랴’라는 속담처럼 사람과 사람이 친해지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들을 수 있는 동네 사랑방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저녁 찬거리를 사서 집으로 올라오는 길에 한번씩 들러 차 한잔 마실 수 있는 곳,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나눌 수 있는 이야기가 있는 곳. 사람들이 모이면 그 안에서 이야기는 항상 생기기 마련이니 상시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했다. 항상 문이 열려있고, 그 곳에 누군가 있으며, 항상 무엇인가를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 지나다니던 누군가가 눈여겨 보다가 어느 날 ‘여기 뭐 하는 곳이에요?’라고 문을 밀며 들어올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은행동 ‘플장환상’은 플장의 탈의실을 커뮤니티 공간으로 꾸며서 사용 중이다. 플장환상을 꾸밀 때도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갔다. ‘플장환상’ 안에 합주실 방음을 위해 계란판을 붙일 때, 아파트 내의 생태벽화를 새롭게 손볼 때 등, 플장환상 프로그램에 참여한 주부들이 순번을 정해 돌아가면서 벽화도 그렸고, 점심도시락도 싸오면서 함께 공간을 채워나갔다.



“처음부터 ‘공사, 저희끼리 못합니다, 도와주셔야 해요.’

그래서, 아줌마들이 모두 나와서 풀칠해서 붙였고,
옆에 칠하는 것까지 같이 한 거예요. 같이 참여하면서요”

(사랑마루 총감독 이상훈)

봄부터 가을까지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이 공간을 이용했으나 겨울에는 높은 천장으로 인해 방한이 되지 않아 다른 모임장소를 구해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밖에 없었다. 사랑마루에선 이런 어려움을 해결해주고자 2010년 가을, 천장을 낮추고 찬 바람을 막을 튼튼한 문으로 교체했다. 또, 동파위험이 있는 야외의 수도배관을 고치고, 화장실을 새롭게 개비하여 한결 깨끗하고 따뜻한 공간이 되었다.

은행동 천장공사를 한 작가 정삼선 씨는 2009년부터 사랑마루와 함께 공공미술 작업을 해온 성남 토박이 작가이다. 이번 년도에 도촌동 섬말사랑방 ‘함께하는 어린이 도서관’을 꾸미는 데도 함께했다.



“내가 올해 한 작업이,

이렇게 동네 사람들을 위한 일”이니까, 더욱 의미가 깊죠.

현재 2년째 사랑마루 사업을 함께 하고 있지만,

이번 년도는 특히 참 보람되고 기분이 좋아요.”



2006년 태평 4동 ‘예술, 태평동에서 노닐다’를 진행할 때, 참여 예술가들의 작업실 겸 갤러리, 모임공간으로 2개월간 열려있던 ‘아트클럽’은 태평 4동 주민들의 문화놀이터였다. 1층 상가 한 곳을 새롭게 단장하여, 주민들이 편히 앉을 수 있도록 마루바닥으로 만들었고 그 곳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사람들이 다니는 길목에 위치했기 때문에, 태평동 아이들은 그 앞을 오가며 언제나 안부인사를 전하며 잠시라도 잠이 나면 들렀다 가는 곳이 되었다. 하지만 프로젝트 성격의 사업 때문에 공간운영이 지속되지 못했다는 안타까움이 있다.

공간 지속성도 중요하지만, 위치도 중요하다. 상대원시장 원다방은 3층에 위치하고 있다. 상대원시장 상인들 대부분은 홀로 가게를 보며 한나절을 보낸다. 잠시 잠이 나더라도 가까운 옆 가게 정도에 마실을 다니는 것이 전부이다. 따라서 원다방이 위치한 높은 3층까지 올라오는 것을 크게 부담스러워 한다. 아마 1층에 위치했거나, 3층이라도 스튜디오 전면을 유리창로 꾸며 밖에서 보이는 구조였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었겠지만 - 원다방을 처음에 만들 때, 성남문화재단이 실현해보려 여러모로 애썼으나 - 위의 방법들은 안타깝게도 실현되지 못했다.



공간 운영에 대한 이슈

플장환상의 현재 실정은 이렇다.

“매일매일 정확하게 9시부터 6시까지 여기를 열어 놓으면 사람들이 **오가며** 차라도 마시는 **공간**이 될 것 같아요. 누군가 한 명이 상주해서 그걸 관리해주면 되는데 저희는 그걸 하기가 조금 어려운 여건이거든요. 아직은 애들이 어려서 오전에만 약간의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프로그램이 있는 시간에만 여는 거죠. 지나가는 **사람들**도 아마 ‘뭔가 하기는 하는데 어떨 땐 닫혀 있고 어떨 땐 열려 있고 뭐하는 걸까...’ 하는 **생각**을 할 거예요.” (은행동 플장환상 이영란)



모임공간이 생기면 운영에 대한 이슈가 발생한다. 플장환상의 경우, 개방 시간을 정하고 자발적으로 의사를 밝힌 지킴이가 정해진 시간만큼 며칠간 플장환상을 열었으나 오래가지 못했다. 우선 상근을 약속한 운영위원회에 개인적인 일이 생겼고, 공간을 지키는 시간 동안 그 공간 안에서 할만한 일

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였다. 컴퓨터는 없더라도 최소한 인터넷 망은 설치되어 있어야 그 곳에서 본인의 고유업무라도 볼 수 있다는 점, 성인 대상의 도서가 적다는 점 등을 어려움으로 꼽았다.

도촌동 섬마을 5단지 506동 1층에 만들어진 ‘함께하는 어린이 도서관’은 섬말사랑방, 5단지 입주자대표

회의, 자원봉사단 ‘한울회’, 사랑마루가 함께 만든 도촌동 사랑방이다. 2009년 ‘옛날 옛날 우리 섬말’을 진행할 때, 주민들끼리 자유롭게 만나고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의 필요성을 느꼈다. 그리고 근래 새롭게 마을이 조성된 도촌동에는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책을 읽을만한 공간이 없었다. 따라서 약 5개월의 공간 탐색기간을 거쳐 마침내 동네 사랑방 공간을 만들게 되었다. 어린이들을 위한 도서 비치 공간, 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 고학년 학생들을 위한 공부방 공간으로 꾸며져 12월 초에 개관식을 가졌다. 현재 이곳은 자원봉사단 ‘한울회’가 공간 지킴과 운영을 맡고 있다. 대부분 워킹맘인 섬말사랑방 어머니들은 짬이 나는 대로 공간을 지킨다.

이 곳들은 공동의 공간이기 때문에 함께 지켜야 할 최소한의 수칙은 꼭 필요하다. ‘풀장환상’의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공간 사용수칙을 입구에 걸어놓고 그 원칙에 부합할 때 공간을 개방한다. 도촌동 ‘함께하는 어린이 도서관’의 경우, 도서관과 커뮤니티 공간에 대한 규범을 차차 정해 나갈 것이다

아 줌 마 Power



아 줌 마.

이 단어가 주는 느낌은 참 **복합적**이다.

여성, 엄마, 한 남자의 부인, **그리고 여자.**

이 시대의 아줌마들을 참 분주하다. 전업주부도 바쁘고, 직장다니는 주부들도 모두 바쁘다.

챙겨야 할 사람이 나 혼자가 아니라, 가족 전체이다 보니, 신경써야 할 일도 많고 바쁘게 돌아다닐 일도 많다. 이렇게 바쁜 생활에도 나의 일상에 ‘동네 일거리’를 끌어 넣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상대원시장 원다방의 실무위원장인 박정숙님은 ‘성남함께하는주부모임’(함주부)의 회장도 맡고 있다. 1996년에 설립된 ‘성남함께하는주부모임’은 성남에 살고 있는 주부들이 자녀 교육과 환경 등을 함께 고민하면서 ‘우리 동네에서 함께 잘 사는 법’을 실천하고자 모였다. 주부들끼리 친목을 도모하고 문화를 함께 만들어 나가기 위해 다양한 교육강좌를 열었고, 지역 어린이들을 위해 ‘책이랑 도서관’을 만들어 운영 중이다. 주부들이 모여서 만든 5개의 동아리들은 각각의 활동 외에도 결식아동 및 독거노인을 위한 반찬봉사, 사랑방문화클럽과 연계한 사회공헌 활동 등을 함께 하고 있다.

“저는 금광동에 살다가 이사해서 단대동에 살았어요. 원래 결혼하고 울산에 살다가, 대전에 살다가, 성남 금광동으로 이사를 온 거죠. 그게 1997년도예요. 성남에는 연고가 없으니 뭐 아는 사람이 있어 야지... 그래가지고 애들을 팍팍하게 키우고 있었죠. 그 때 우리 애들이 아마 3,4살이었을 거예요. 옆집 아줌마가 이런 단체가 있다고 알려줬어요. 그 엄마도 함주부 회원이었는데, 이런 주부모임이 있고 활동하고 있다고 해서, 여기에 온거죠. 항상 버스를 타고.”

(상대원시장 원다방 박정숙)

주부들에게 가장 큰 관심은 가족, 특히 아이들이다. 내 육아방법이 올바른지, 다른 집 엄마들은 어떻게 아이들을 키우는지에 대해서 무척 궁금해하며 정보를 공유하기 원한다. 만남과 정보를 나누는 과정을 통해 ‘내’ 아이가 ‘우리’ 아이가 되고, ‘함께 잘 키우는 방법’을 찾으려 잘 키우기 위해선 우리가 사는 동네를 이렇게 바꾸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게 된다. 그 바람을 실천하기 위해 함께 연대하고 행동한다. 이처럼 우리나라 마을 동아리의 모태는 주부들의 모임과 품앗이에서 유래되는 경우가 많다.

더불어 주부들은 품앗이나 동아리 활동을 통해, 한동안 잊고 있었던 내 자신을 찾게 된다. 모임을 만들고 그 안에서 역할을 맡아 활동하며 성취감을 느끼는 일련의 과정은 사회 구성원이자 한 사람으로서 자존감을 높이는데 영향을 끼친다.

“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동네에서 상처 주고 상처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대다수의 아줌마들과 자꾸 모임을 만들고 일을 벌일까? 누군가에게 크게 인정받고 싶어서일까? 아줌마들 사이에서라도 힘의 중심이고 싶은 걸까? 물론 무의식 속에는 인정받고 싶고, 사랑 받고 싶은 욕구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도서관을 하는 이유는 그 뿐만이 아니었다. 내가 ‘왜 사는지’에 대한 답을 얻은 곳이 책이었고 ‘나는 무엇이 되고 싶은지’에 대한 끊임없는 탐색 과정에서 많은 정보도 책에서 나왔다. 내 인생의 스승을 만나고 세상을 이해하고 위로 받고 치유할 수 있었던 책의 소중함과 조금씩 나아지고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 책과의 인연을 나의 다섯 아이들과 꿈과 미래가 없는 도봉1동 아이들에게 전하고 싶다. 그것이 소박한 첫 번째 이유였다. 두 번째 이유는 아이 키우고 시부모 공양하고 남편 내조하고 살림살이 잘하는 것 이외에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사람이란 것을 확인하고 싶었다. 사람을 잘 설득하고, 모임도 똑딱 똑딱 잘 만들고, 분위기 메이커이고, 헌신적이며 사람들을 잘 감싸 안는 내 장점들을 모아 세상을 향해 맘껏 표현하고 펼쳐보고 싶었다.”

(이순임, 도봉어린이문화정보센터 관장)

위의 글은 15년간 도봉구에서 지역활동을 한 이순임 님의 이야기이다. 매개자 교육과정 1차 교육 강사로 초빙한 이순임 님은 다섯 아이를 낳으며 18년 동안 집안일 한 주부이야기, 지역사회에 나와서 처음으로 참여한 품앗이 이야기, 품앗이 모임이 동네의 작은 도서관 설립으로 이어진 이야기, 나는 왜 동네 일을 하는지에 대한 이유 등 주부활동가의 눈높이에서 진솔하게 이야기 해주셨다. 현재 이순임 님은 초록나라도서관 관장을 거쳐 도봉어린이문화정보센터의 관장으로 활동 중이다.



상대원시장 원다방 방송국장 장미라 님이 눈을 반짝이며 한 이야기가 생각난다.

“시 낭송을 하고, 원다방 방송을 하면서 느낀 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이 일들을 참 잘한 것 같아. 이런 게 행복한 거지,
다른 게 행복이겠어?”

장미라 국장님의 말을 들으면서 떠오른 생각은 동네만들기 사업이란 동네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자아를 발견하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 역시 사람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는 것이다.



관 계

를 맺 으 면 서

풀 어 지 는 오 해

관계는 사람들 사이에서 생성되고 성장한다. 누군가를 만나서 감정이 싹트고 온정이 오고 갈 때, 나와 상대방의 관계는 탄탄해 진다. 이 곳에서 만난 사람들로 인해 기쁘고 행복해져야 자주 오고 싶고 무엇인가 함께하고 싶어 진다. 누군가와 관계를 맺는다는 것, 내 생활의 일부가 된다는 뜻이다.

하지만, 동네 일을 하다 보면 뜻하지 않는 오해와 불신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사업을 실행한 헛수가 거듭될수록,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이들을 무엇보다 괴롭힌 건 사람들의 의심이었다.

‘저걸 뭘 그렇게 열심히 해? 어디서 돈 받나?’

“이 사업하면서 정말 내가 돈이라도 받으면 억울하지 라도 않지. 뭐 어떻게 보여줄 수도 없고... 풀장환상에 참여한 사람들은 대충 알지만,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죠.”

(은행동 풀장환상 강현희)

“저는 사업을 진행했던 우리들끼리 알게 모르게 서로 상처를 받았던 것 때문에 마음이 안 좋아요. 그냥 차 한 잔 마시고 이야기하면 끝날 일인데, 이게 사업이니까 같이 뭔가를 만들어야 하고, 거기에서 각자 의견차이가 생기는데 해결방법을 모르니까... 그게 더 힘들었던 같아요.”

(은행동 풀장환상 이영란)

풀장환상 운영위원장 강현희님은 처음 참여한 2007년부터 매년 사업을 할 때마다, ‘내가 그냥 조금 봉사해서 아파트의 몇 명이라도 혜택을 받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시작을 하지만, 중간에 속상한 일이 생기거나 힘들 때는 ‘이걸 내년에 또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런 생각이 들면 마음이 아프다고 한다. 늦게 합류한 이경진, 이영란 님도 ‘풀장환상’의 매력에 빠져서 사업에 참여했으나, ‘내 일’이 되고, 주변의 곱지 않은 시선 때문에 상

처를 입기도 했다.

사랑마루에선 오해를 사지 않고 동네 안에서 원활한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최대한 열린 참여구조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사업과 운영에 대해 궁금점이 생기면 언제나 회의에 참관할 수 있고 운영에 참여하고 싶다면 누구든지 함께 일을 할 수 있다는 원칙, 이러한 열린 구조는 본 사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다.

“동네만들기 사업에서 제일 중요한 ‘관계 맺기’라고 생각해요.

자칫하면 너무 사업중심으로만 관계를 맺을 수 있는데,

동네만들기 사업에서 중요한 점은 처음의 순수함,

즉 인간적인 관계를 맺어 발전하는 방향으로 확장되는 것이 중요하죠.

함께 만나서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즐거워야 하거든요.”

(사랑마루 총감독 이상훈)





현장스케치 I

언론에 비친 ‘사랑마루’

성남시 동네만들기 지원센터 ‘사랑마루’

도서관 만들고 벽화 꾸미고...더 살기 좋게 가꾸는 고향마을

내가 살고 있는 곳, 내 아이가 태어나고 자라는 곳을 더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려고 하는 이들이 있다. 성남시 동네만들기 지원센터 ‘사랑마루’ 사람들이다. 사랑마루는 성남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예술가, 지역활동가, 동네 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생활 문화예술 통합 프로젝트다. 올해 마무리를 앞둔 이들을 만났다.

내 고향 성남, 내 손으로 가꾸기

3일 낮 12시. 중원구 도촌동 섬마을아파트 5단지 1층의 주민자치위원회 사무실은 청소년 공부방으로 새 단장을 하는 중이었다. 옆방은 마을도서관 만들기 작업이 한창이다. 직접 손에 붓을 잡고 공부방과 도서관을 꾸미고 있는 이들은 사랑마루의 도촌동 프로젝트 팀장인 박진영(42·중원구 성남동)씨,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가 이화섭(44·수정구 태평동)·정삼선(42·중원구 금광동)씨 등이다. 고등학교 미술부 선후배 사이인 이들이 성남시 동네만들기 사업을 위해 하나로 뭉친 것이다.

사랑마루는 태평4동, 상대원동, 은행동 등에서 동네만들기에 참여하던 7명이 모여 시작했다. 크고 작은 행사가 있을 때는 내용에 따라 10~12명까지 모여 함께 한다. 사랑마루의 이상훈 총감독(43·중원구 상대원2동)은 2006년 태평4동 사업으로 동네만들기와 인연을 맺었다. 태평동을 카메라에 담으면서 마을 외관 가꾸기보다 주민 공동체 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중략)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성남에 살고 있는 이 총감독은 “성남 구시가지가 개발되던 70년 대 성남에 왔던 초등학교생들이 40대가 됐다”며 “이들이 지금도 성남에 살면서 내 고향을 가꾸고자 하는 마음을 품고 모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함께 하고 있는 박 팀장은 벽화작업을 해온 프리랜서 디자이너다. 그는 2007년 상대원공단 프로젝트를 통해 공공미술 일을 시작했다. 동네만들기 사업의 하나였던 은행동 풀장환상, 수진동 하늘텃밭 등이 박 팀장과 이 작가, 정 작가의 손으로 만들어졌다. 이초영팀장(35·서울 동선동)은 초기 멤버 중 유일한 외지인이다. 그는 2005년부터 사랑방클럽 프로젝트를 계기로 함께 하게 됐다.

주민이 주체인 문화마을공동체

그 동안 동네만들기가 진행된 곳은 은행동 주공아파트, 상대원시장, 상대원공단, 수진동, 도촌동 등이다. 기대 이상으로 좋은 성과를 거둔 동네도 있지만 호응을 얻지 못 한 곳도 있다. 사랑마루는 세 가지 활동에 중점을 뒀다. 주민모임공간 만들기, 주민 스스로 주체가 되는 커뮤니티 만들기, 이웃과 함께 하기다. 이를 위해 동네별로 동네만들기 운영위원회를 조직했다. 가족·이웃이 함께 할 수 있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우리 동네의 역사를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주민들이 직접 문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게 도왔다. (중략)

... 도촌동 마을도서관에 동네만들기에 참여한 모든 이들이 모인다. 박팀장은 “작가, 지역활동가의 관점에서 욕심을 버리고 주민이 원하는 것을 따라갈 때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아직은 해결해야 할 문제도 많다. 참가하고 싶은 동네는 늘어나는 데 모든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올해 잠시 활동을 멈춘 수진동은 다문화가정이라는 동네 특색에 맞춰 새로운 프로그램을 구상할 계획이다. 이 총감독은 “문화예술만으로 동네만들기에 한계가 있다는 생각에 지역 내 복지·여성·청소년단체들과 함께 할 방법을 찾아가고 있다”며 “내 아이에게 더 좋은 성남을 만들어 주려고 한다”고 미소 지었다.

〈2010. 11. 09 중앙일보 마이라이프, 신수연 기자 ssy@joongang.co.kr〉



CHAPTER 2

뭘 해야 재밌을까? 콘텐츠 발굴 이야기

콘텐츠(Content)는
사전적으로 ‘내용’, ‘개념’을 뜻합니다.
사랑마루는 콘텐츠를 알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알맹이를 알차게 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뭘 해야 재밌을까?’에서는
각 동네에서
문화예술을 매개로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는지
그 프로그램에는 어떤 요소가 가미되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은 커뮤니티에 기인한다.

커뮤니티는 지연을 기반으로 한 공동사회를 뜻하는데, 사회학에선 두 가지로 해석된다.

첫째, 사회조직체로서 공간,지역적 단위를 가리키며,

둘째, 심리학적인 결합성 또는 소속감을 지칭한다.

본 사업은 공간과 지역을 공유하는 개인끼리 연결하여

그 속에서 일어나는 감정과 태도의 **긍정적인 변화를 목표**로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커뮤니티' 정의 참조)

그렇다면 동네라는 커뮤니티 안에서 문화예술을 매개로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

사랑마루는 '어떤 것을 해야 주민들이 좋아할까? 주민들이 무엇에 관심있을까?' 을 고민하며

자신의 경우로 바꿔 생각했다.

'과연 나는 동네에서 무엇을 하면 관심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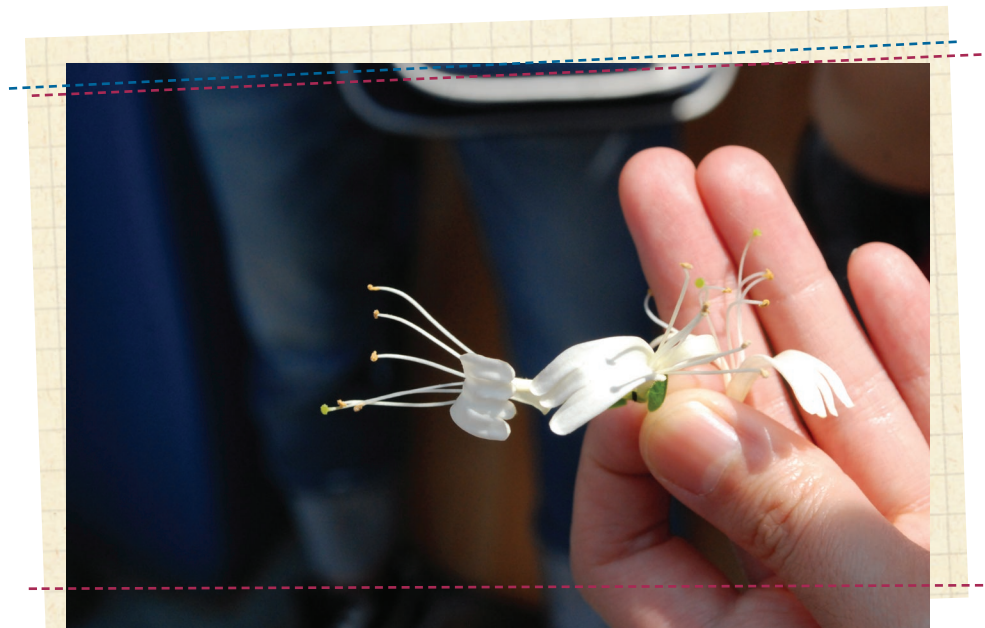
더 나아가서 내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와 예술은 어떤 의미인가?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문화와 예술은 **삶의 윤희유 같은 존재**이다.

각박한 도시의 삶에서 한숨 돌리게 만드는 **공원의 벤치와 같은 존재**.

누구나 어디서든 원하면 즐길 수 있어야 하고 **내 주변의 공기**처럼 둘러싸여 있어야 하는 그것.

바로 그것이 **문화와 예술이 가진 가치**이며 **의미**인 것이다.



문 화 예 술 동 아 리 가 가 진 의 미

생활 속, 문화예술 행위는 무궁무진하다. 관람자로서 전시와 공연을 즐기는 방법부터 스스로 작가나 공연자가 되어 전시와 공연에 참여하는 방법까지 그 범위와 방법은 실로 넓고 다양하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내 문화예술 행위의 범위가 관람이라는 개인적인 삶에서 참여라는 사회적인 삶으로 옮겨가는 과정이다.

바로 현대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손쉽게 문화와 예술을 경험하는 방법 중 하나는 문화예술 동아리 활동이다. 가까운 문화센터 또는 주민자치센터에 개설된 프로그램을 통해, 내가 배우고 싶은 여러 것들을 배울 수 있다.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하면 솜씨가 다져지고 더욱 더 숙련된다. 함께 배우는 사람들과 친밀감도 높아진다. 또는 친해진 사람들끼리 각자의 재주와 결과물을 모아 색다른 무언가를 도모해볼 수도 있다.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과 께를 함께 하는 사랑방문화클럽 네트워크 사업은 시민 문화예술 동아리 지원 사업이다. 사랑방문화클럽 발전방안을 세우기 전, 성남에서 자생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 동아리의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1,103개의 동아리가 활발하게 활동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고 조사되지 않은 동아리까지 합치면 약 3,000여 개가 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동아리의 활동특성에 따라 친목, 배움, 숙련, 공헌클럽으로 유형화되었는데, 이 조사에서 놀라운 점은 상당수의 클럽이 친목 또는 배움클럽으로 시작하여 숙련클럽을 거쳐 공헌클럽으로 성장했다는 것이다. 꾸준한 활동으로 기량이 향상된 회원들은 스스로 사회공헌적인 활동의 욕구가 생겨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찾게 된다. 실제로도 클럽 존속 연수가 긴 클럽들이 지역 내 봉사활동 등을 꾸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이 진행되어 동네별로 동아리가 생겨나면서 하나 둘씩 지역 주민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문화예술 동아리는 일상 생활 안에 잠재된 욕구를 충족해 줄만한 그 무엇인가가 있었다. 본 사업이 진행된 2006년부터 각 동네에서는 생태탐험, 사진, 영상, 쿼트, 한지공예, 기타, 밴드부, 탈춤, 인형극 등 다양한 형태의 문화예술 동아리가 정해진 기간 동안 각자 원하는 교육을 받는 형태로 시작되었다. 현재는 오랜 동아리 활동으로 인해 역량이 성장한 회원들은 자율적으로 모임을 갖거나 다른 동네의 강사로도 참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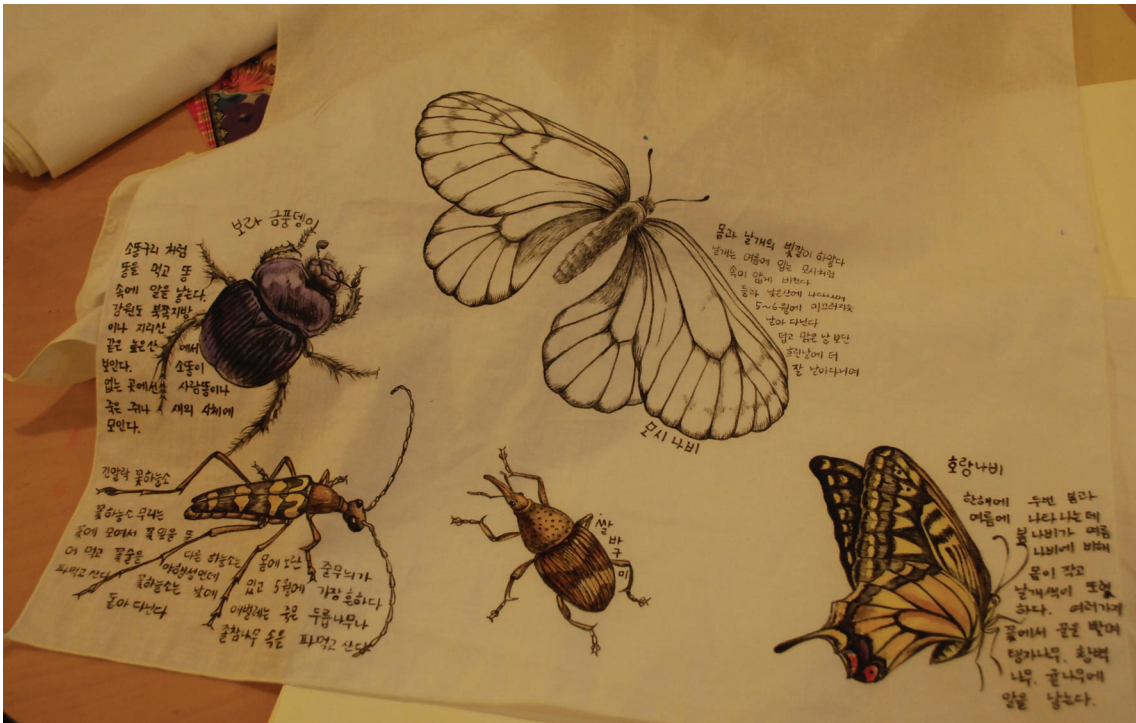


“주민들이 마을 만들

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일반적인 이유를 살펴보면, 첫번째는 배움에 대한 요구 때문입니다. 기술이나 지식에 대한 습득 뿐 아니라, 배울 수 있는 기회의 체험이라면 참여하고 싶어하죠. 특히 초등학생 정도의 자녀를 가진 주부들은 시간이나 장소에 크게 구애 받지 않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거든요. 두번째는 동네 안에서의 관계형성을 들 수 있죠.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동네 친구가 있다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세번째는 자녀들에게 교육과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입니다. 특히 학교나 학원에서 접하기 쉽지 않은 교육이라면 더욱 더 그렇죠. 또 극히 소수이기는 하지만, 이웃들과 가깝게 지내고 훈훈한 동네로 변화했으면 하는 바람이나 자신 혹은 자녀의 재능을 알리고 보여주고 싶어 참여하는 경우도 있어요. 주된 이유를 한 마디로 정리하면 배움과 만남에 대한 요구라 할 수 있죠.” (사랑마루 총감독 이상훈)

문화예술 동아리의 속성인 배움에 대한 열망, 배우는 과정에서의 관계형성, 체득한 성취감의 발현이 주민들의 몫이었다면, 어떤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어떻게 관계를 맺고 주민들의 성취감을 어떻게 순환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성남문화재단과 사랑마루의 몫이었다





배움 과 나눔 의 결 합 | _은 행동 표 장 환 상

<문 화 나눔>



나는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일주일에 1회 이상 특별활동시간에 참여했다. 한자부, 글짓기부, 수예부, RCY, 로타랙트까지 배움과 봉사를 테마로 한 여러 동아리에서 활동했다.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더 배우고 싶었고 나 이외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다. 내가 가진 열정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시작했고 그 결과, 봉사활동에 매진했다. 이런 활동은 학생으로서의 '나' 이외에, 사회에서의 '나'를 생각하게 되었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게 되었다.

은행동 '폴장환상'에서는 2010년부터 '문화나눔'을 시작했다. 서로가 가진 재주와 솜씨를 나누길 원하는 사람들이 모임을 만들고 각자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강사가 되어 그 안에서 순환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모인 사람들이 하고 싶은 프로그램과 교육회수를 스스로 정하고 재료비의 30%는 자부담 했다. 모듬 회원들은 성남문화통화 회원으로 등록하여 '넙실'을 사용하였다. (넙실은 성남문화통화의 단위로 "성남에 있는 탄천이 넙실넙실"거리는 것처럼 문화예술이 성남의 동네 곳곳에서 '넙실넙실' 구비치는 그날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문화도시 성남'의 문화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생명의 물이 흐른다는 이미지를 형상화하고 있다.)

문화나눔의 세부 프로그램은 참여자들의 수만큼 다양해졌다. 2010년 6월 발도로프 인형 만들기를 첫 강의로 켈트 가방 만들기, 리본공예, 천연화장품 만들기, 네일아트, 겨울맞이 뜨개질로 이어지고 있다. 각 프로그램 별로 2~4회 정도의 강의를 진행되었으며 참여자들의 집에서 돌아가며 반찬품앗이도 꾸준히 진행 중이다. 향후 배움과 나눔을 실천하는 문화예술 생활협동조합 형태를 구상하고 있다. 문화통화 가입자도 늘어서 현재 20명이 넘는다.

“여기의 이점은 멀리 안 가도 아파트 단지에서 모든 게 해결되고 재료비도 많지 않으니까, 또 내가 배워보고 싶은 걸 배울 수 있거든요. 문화센터 이런 곳에서 아이를 기다릴 때는 다른 사람들이랑 수다를 떨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하고 얘기는 나누지만 아이가 나오면 그냥 돌아서서 가는거죠. 그 다음에 그 프로그램 신청하지 않으면 그 사람과는 멀어지는 거고요... 그런데 같은 아파트에 사니까, ‘나는 수업 한번 빠졌는데 가르쳐 달라’고 부탁할 수도 있고 그런 장점이 있죠.”

(은행동 폴장환상 이앵란)

‘어쩔, 이 얘기엄마가 이런 재주를 가졌는지 몰랐네?’ 또는 ‘배우고 싶었는데, 이 기회에 배우자!’ 하는 마음과 더불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몰랐던 이웃을 알게 되거나, 원래 인사만 했던 이웃이지만 점점 친해지는 경험들이 더 소중하다고 한다. 문화나눔이 진행되는 매주 금요일 아침 10시부터 12시까지의 동네 주부들의 수다모임이다. 모여 앉아서 바느질, 뜨개질을 하면서 이야기를 도란도란 나누고, 오늘 만든 반찬으로 점심을 나눠 먹는 모습, 바로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참다운 동네의 모습이 아닐까?



배움과 나눔의 결합 II _ 상대원시장원다방

<재미나는 시낭송>

“작년 6월부터 DJ를 하게 되었어요. 그때, 제가 글을 쓰고 있을 때였는데, 원다방을 보러 왔죠. 방송하는 모습을 보고 ‘여기서 진행이 되네? 글이 살아있는 방송으로 나가고 있구나’ 생각하던 차에 장미라 국장님이 방송코너가 많은데 진행할 DJ가 부족하다며 해보지 않겠냐고 제안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그다음주부터 방송에 투입됐죠. 제 성격이 새롭고 낯선 것에 대해 크게 겁내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되도록 방송 안 빠지려 노력했어요. 방송에 빠지고 싶지 않고요. 최소한 내가 가진 것 이상으로 방송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저는 어디서든지 제 것을 잘



쌓으며, 그것을 발판으로 여러 사람과 함께 그려가고 싶어요. 내가 가진 여러 재주와 기술로 하는 봉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것을 방송이라는 매체로 할 수 있고, 내가 원해서 하는 활동이라 생각하니까, 아이에게도 자연스럽게 보여줄 수 있어요. 욕심부리지 않으면서요.”

(상대원시장 원다방 박인자)

상대원시장 원다방이 처음에 문 열 때, 지역 주민들과 상인들로 DJ를 구성하려 노력했다. 그 결과 현재 12명의 성남 주민 DJ와 요일별 고정 게스트가 일주일의 방송을



책임지고 있다. DJ들에게 처음에 원다방을 알게 된 이유를 물으니 지인을 통해서, 성남문화재단 모니터링단 활동을 통해서 또는 지역기관의 연계를 통해서 등, 다양각색이다. 그와 달리, 이들이 공통적으로 한 이야기는 ‘나는 즐겁게 방송하고 있다. 방송은 내 삶의 활력소이자, 봉사하는 내 모습’이다. 방송국장 장미라 님, DJ 이길순 님, 박신명 님, 박인자 님, 손종구 님, 김두산 님은 ‘재미나는 시낭송’ 팀으로 활동하고 있다. 장미라 국장님이 평소에 관심이 많았던 시 낭송을 배웠고 DJ 중, 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 낭송모임을 만들었다. 5명으로 시작해서 현재는 10명의 회원이 활동 중이다. 낭송 모임은 DJ들을 더 친하게 만들었고 가끔 만나서 함께 저녁을 먹고 가볍게 술잔을 기울이기도 한다.

“DJ 중에 글을 쓰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리고 장미라 국장님이 시낭송을 잘 하니까,

‘우리 시낭송 모임 해보자!’ 하고 장미라 국장을 졸라서 시작했죠.

나는 누가 한다고 하면 ‘같이 할게’ 하고 사람이 많아지면 빠져나오는 타입이에요.

하 하.

지금 ‘재미나는 시낭송’ 팀이 사랑방문화클럽에까지 가입하여 활발하게 활동하니까 좋아요.

나는 시낭송 잘 못하지만, 보기도 좋고 보람도 있고, 참 좋아.”

(상대원시장 원다방 이길순)



‘재미나는 시낭송’ 팀은

사랑방문화클럽에 가입하여 사회공헌 활동도 꾸준히 하고 있다.

개별적으로 매주 목요일은 성남시 노인보건센터에서,

금요일은 성남 금곡동에 있는 ‘헤리티지 너싱홈’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시 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회원들이 시를 먼저 낭송하면, 글씨를 읽으실 수 있는 어르신과 함께

시를 낭송하는 프로그램인데,

매주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노인 분들의 인원이 늘어나고

귀를 기울이는 모습을 보면 무척 감동스럽다고 한다.



지역성 을 담자

성남시 중원구에 위치한 도촌동은 2002년 택지개발 예정 지구로 지정되고 2003년 승인되어 2007년부터 공공 주택이 공급된 지역이다. 사방이 녹지로 둘러싸여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분당과 동일한 생활권, 편리한 교통 환경을 가지고 있다. (디지털 성남대전 '도촌동' 참조)

2009년 시작된 도촌동 섬말사랑방의 경우, '도촌동'이라는 지역을 제일 많이 생각하고 만든 프로그램이다. 사랑마루는 도촌동을 새로운 사업지역으로 구상하면서부터 제일 처음 지역조사를 시작했다. 새날 아동상담센터, 도



촌 YMCA, 한국청년연합회 성남지부(성남 KYC) 등에 방문하여 '동네만들기 사업'을 시작하려 한다고 밝힌 후, 세대별 특징과 구성, 지역시설 현황 등에 대해 정보수집을 하고, 함께 이야기 나눴다. 향후 협력방법도 모색했다.

도촌동을 지역 조사한 결과, 세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첫째, 새롭게 동네가 형성되는 지역이라 현재까지 동네의 정체성이 확립되기 전이었고 둘째, 문화시설 및 편의시설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했으며 셋째, 초등학생과 중학생 자녀를 둔 맞벌이 가족들이 많은 편이었다. 그래서, 기획단계부터 가족 대상 프로그램, 내가 살고 있는 도촌동이라는 동네에 대해 이웃과 함께 알아가는데 초점을 맞췄다. 그 결과물이 '옛날옛날 우리 섬말'이다. 초등학생과 부모님이 한 팀을 이뤄서 도촌동 내 유적과 유물을 답사하고, 유물과 관련된 공예와 사진 등으로 답사를 기록하는 문화역사체험 프로그램이다. 격주로 실외 답사 1회, 실내 체험프로그램 1회로 진행했으며 총 10회 모였다. '옛날 옛날 우리 섬말'은 가족과 이웃이 모이는 자리를 마련해 도촌동의 역사를 함께 배우며 체험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사는 동네에 대한 공동체 의식이 형성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많은 주민





들이 참여하는 공개강의 형태를 지양하고 소수의 가족을 대상으로 모듬을 구성하였다. 사랑마루 팀원들은 모든 가족들을 진심으로 대하며 즐겁게 일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참여하는 아이들과 어머니들은 매주 토요일이 기다려진다고 했다. 같은 단지에 살았지만 전혀 몰랐던 다른 집 가족끼리 인사를 나누고, 어머니들끼리 ‘언니, 동생’이 되어 갔다. 아이들도 모여서 함께 놀기 시작했다.

“도촌동에 참여한 가족은 프로그램이 진행될수록 유대감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동네에 가서 ‘옛날 옛날우리 섬말’에 대해서 알리고 자랑했죠. 2009년 하반기에 신종플루로 인해 프로그램을 잠시 쉬어야 하나 고민했는데, 여덟가족이상이 꾸준히 참석한 것을 보면서 ‘이 프로그램을 꽤 좋아하고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도촌동 팀장 박진영)

상대원시장 원다방은 전혀 새로운 콘텐츠를 지역에 접목시킨 경우이다. 전통시장 활성화와 시장 상인들을 위한 라디오방송으로 시작된 ‘원다방’은 전국 전통시장에 훌륭한 모티브를 주었다.

원다방을 벤치마킹하여 다른 몇몇의 지역 전통시장에서도 방송을 하고 있다. 허나, 낮시간 동안 혼자서 가게를 봐야 하는 상인들은 직접적인 라디오 방송 참여가 어렵고, 몇몇의 DJ들은 시장 속 사정을 알아내어 방송 소재로 다루는데 소극적인 것이 현재 당면한 문제이다.

“매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내용과 형식이 아무리 뛰어나도 거기 적극적인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오래가기가 힘들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다방의 경우, 오랜 시간이 걸려도 상인들이 방송국에 결합해서 주민들과 상인들이 함께 방송국을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 방법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죠.”
(원다방 팀장 한유진)

도촌동 섬말사랑방은 지역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의 시각에서 동네를 조망하여 그들의 욕구가 무엇일까 파악한 점이 적중했다. 섬말사랑방 참여가족들은 동네친구인 이웃이 필요했고, 사랑마루는 이웃단위, 가족 단위 프로그램의 실효성에 대해서 궁금했다. 반대로 상대원시장 원다방은 새로운 개념의 ‘라디오’라는 콘텐츠를 중심으로 지역 내의 네트워크가 함께 운영하는 경우라서 시장상인들이 만족하고 있는가를 살피며 서로 소통하는 자리를 꾸준히 마련해야 하는 것이 과제로 남았다.

어느 동네이건, 동네만들기 사업을 진행하고 싶다면 그 동네의 역사, 가족 구성원, 세대 구성율, 주변 환경 등에 대한 정보 수집과 이해가 선행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사업목표에 따라 함께 일해야 할 주민들, 그 대상을 분명히 해야 한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여러 사람들과 진정으로 관계를 맺으려는 하는 마음이다. 사업만을 위한 관계가 아니라 순수하게 인간적인 관계를 높이려는 관계여야말로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온다. 진심은 진심을 알아본다.

지역주민들이 '선생님'으로 만든다



본 사업이 시작될 당시, 주민들은 참여자로서 동네별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수제 책을 만들고, 한지공예와 포크아트를 배우고, 켈트 천을 바느질하며 조금씩 내 것으로 만들었다. 그 과정 속에서 더 배우고 싶은 열정이 생긴 사람들은 고급과정을 배우거나 함께 배운 사람들끼리 모여서 동아리를 만들기도 했다. 서로에 대해 알아가고 친해지면서 상대방이 가진 재주를 알게 되었고 가르쳐주기 시작했다. 이런 활동이 지속되려면 어떻게 지원해야 할까?

사람들은 누구나 재주가 한 가지씩은 있다. 모든 요리든 맛깔스럽게 잘 하거나, 정리정돈에 대한 노하우가 무궁무진 하다던가, 그림을 잘 그리고, 글을 잘 쓰는 등 서로 다른 방면에서 각자 소질과 재능을 가지고 있다. 선천적인 재능을 타고나서 잘 할 수도 있고, 후천적으로 배우고 노력해서 잘 할 수도 있다. 내가 잘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이 있고, 또는 일상생활 속의 취미로 삼아 즐겁게 지내는 사람도 있다. 직업으로 또는 취미로 활동하는 사람들을 움직이는 동력은 무엇일까, 일단 내가 재미있어야 하고, 두번째, '그래, 너 그거 하나는 정말 잘해!' 하는 다른 사람들의 인정이라고 생각했다. 여기에서 '인정'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내가 속한 크고 작은 사회에서 나를 인정하고 인정받았다고 느끼기 위해서는 어떤 시스템이 필요할까?

은행동 풀장환상 운영위원장 강현희님은 상대원시장 원다방에서 열렸던 주민대상 켈트 프로그램의 강사로 활약했다. 또, 이영란, 이경진님은 도촌동 생태탐험 강사로 참여했다. 또, 앞서 설명한 은행동 풀장환상의 문화나눔은 평범한 주부들을 모두 서로의 선생님이로 바뀌놓았다. 교육 수강자를 강사의 위치로 변화시키는 과정은 문화소비와 생산의 주체가 결합되는 과정이며, 이 또한 액션 러닝(Action Learning)의 과정이기도 하다.

2009년 도촌동 섬말사랑방 프로그램이 끝난 후, 사랑마루 워크숍 자리에서 박진영 팀장은 아래와 같이 말했다. "참여하신 어머니들에서도 인재를 있어요. 동화구연하는 어머니에게 부탁해서 마지막 시간에 동화구연을 들었죠. 프로그램이 끝나도 1월부터 자발적으로 꾸준히 활동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비즈공예를 하신 어머니, 천연비누를 만드는 법을 가르치실 수 있는 어머니, 독서지도를 할 수 있는 어머니들이 스스로가 가진 재능과 소질을 발현할 수 있는 프로그램 구성을 생각하고 있어요."



따라서, 2010년 도촌동 섬말사랑방에서는 두 개의 프로그램에 어머니를 강사로 세웠다. 운영위원장 이정은님은 천연비누 만들기 프로그램, 박선헌님은 어린이 동화연극을 맡아서 가족들을 가르쳤다.



박선헤님은 동화구연가로, 2009년부터 참여한 대현이, 서현이 어머니이다. 박선헤님이 5명의 아이들에게 가르친 '구질구질 꼬질꼬질'은 섬남문화재단에서 1회, 사랑마루 작은발표회에서 1회 공연했는데 꽤 인기가 높았다. 아래 글은 박선헤님이 공연이 끝난 저녁, '섬말사랑방' 온라인 카페에 올린 후기이다.

'이번 공연에서 저도 참 많이 배웠어요. 아이들에게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경험이 더 필요했고, 모방 속에서 창의력도 생겨난다는 것을 알았네요. 무조건 아이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보자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더니 어렵고 힘들었어요. (중략) 정말 아이들은 많은 걸 깨닫도록 보여주고 얘기하고 설명하고...참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네요. 저도 아이들 동극이 발표까지 가는 건 처음이었네요. 저에게 매우 좋은 경험이었답니다.'



사업 참여자들의 입장에 서다

주민들이 생활 영역 안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본 사업에서 열심히 활동한 참여자는 대다수 전업주부들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부들은 시간적, 공간적으로 크게 자유롭지 못하다. 어린 자녀를 둔 주부들은 아이들이 유아시설과 학교에 있는 오전시간이 자유롭고 고학년 자녀를 둔 주부들은 오후시간까지 비교적 여유가 있다.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 주중 프로그램의 참여는 어렵고 주말프로그램은 참여가 가능하다. 따라서, 은행동 문화나눔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동안 진행되었고, 맞벌이 부부가 많은 도촌동의 경우 대다수의 프로그램이 토요일에 편성되어 있다. 이처럼, 그들의 생활패턴을 고려하고 그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귀 기울여야 한다.

또 하나의 이슈는 참여자들의 최고 관심사를 파악하는 것이다. 어머니들의 최고 관심사는 자녀들의 교육이다. 어머니들은 정규교육과정 외의 관심과 더불어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관심도 높았다. 동네 가까이 문화 시설이 부족하면 아이들의 예술적 소양을 높이기 위해서는 먼 거리도 기꺼이 달려갔다. 도촌동 기수,혜수 어머니인 송금숙 씨도 섬말사랑방에 참여하기 전까지는 매주 토요일마다 전시와 공연정보를 알아봐서 아이들과 함께 다녔다고 했다. 창의성과 감수성을 키워주는 데는 많이 보여주고 느끼는 것이 제일이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은행동 풀장환상이 시작된 2007년도, 어린이 대상인 프로그램과 주민대상 프로그램이 모두 진행되었다. 풀장에서는 아이들의 말소리가 떠날 줄을 몰랐다. 도촌동의 경우 엄마,아빠가 함께 배우고 참여할 수 있으며, 유대감을 나눌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기획하여 집중했다. 그 결과 현재, 섬말사랑방에서 열리는 행사마다 엄마, 아빠가 솔선수범하여 함께 행사를 치른다.

사랑마루 팀은 각 동네마다 특성을 파악하여 그에 알맞은 사업기획을 내놓는 것이 끊임없는 고민이자 과제이다. 특히 새롭게 사업이 시작되는 동네는 지역적 특색을 담아 주체발굴에 대해 고민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다. 예상과 달라 실행단계에서 바뀐 경우도 여러 번 있었다.

동네만들기 사업을 수행하려면 위의 여러 요소들을 염두에 두어야 하겠지만,
잊지 말아야 할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

“제가 미술을 좋아하는 이유는, 미술은 **같은 게 없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건, 같은 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한테는 반복이라는 것이 없죠.

사람들이 모여서 나오는 결과물은 같은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더 재밌어요.

사람들의 일이니까 더욱 가치있고요.”

(원다방 팀장 한유진)

한유진 팀장의 말은 사업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알려준다. 역시 제일의 중심은 사람이다.



현장스케치 II

은행동 풀장환상 '문화나눔'과 '문화배움터'

문화나눔은 관계나눔

'문화나눔'에 대한 이야기가 처음 나왔을 때, 강현희, 이영란, 이경진 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함께 참여할 아파트 주민들을 모아보겠다고 하셨다.

준비기간 동안, 운영위원들과 평소 친분이 있던 아파트 주민들, 그 주민들이 알고 있던 여러 사람들이 결합하여 총 10여명이 모였다. 각자가 서로에게 가르칠 수 있는 것, 배우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정리하고 일단 시작해보기로 했다. 문화나눔이 진행되는 동안, 분명히 다른 재주를 가진 사람들도 모일 것이라는 믿음에서였다. 그리고 참여자 모두가 문화통화 회원으로 가입해 성남문화통화인 '넘실'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성남문화통화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기술을 다른 시민에게 제공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가 필요한 재능과 기술을 제공받을 수 있는 일종의 '문화품앗이' 제도이다.

문화나눔 첫 시간, 8명의 아파트 주민이 모였다. 첫 순서로 성남문화재단 유상진 과장이 참석하여 문화통화 '넘실'에 대해 교육했다. 지역화폐의 성공 사례로 알려진 과천 품앗이와 대전 한밭LETS가 담긴 영상을 보며, 지역통화가 지역 내에서 어떤 역할과 구실을 하는지, 실제 생활과 어떤 연계점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질문하고 이야



기 나눴다. 이후, 문화통화 통장을 각자 발급받았다.

문화나눔을 진행하면서 1회 강습료는 얼마의 넘실로 정할 것인지, 풀장환상을 청소하는 사람에겐 얼마의 넘실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향후 자체적으로 정해갔다. 그리고 프로그램마다 반장을 선출했다. 해당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시작 전, 풀장의 문을 먼저 열고 회원들의 연락을 챙기는 역할을 했다. 이는 참여자들끼리 최소한의 책임을 나누기 위한 방법이었다.

문화나눔은 각 프로그램마다 길면 4주, 짧으면 2주 정도로 진행하기로 했는데, 첫 프로그램은 발도로프 인형 만들기였다. 발도로프 인형만들기 강사 조은숙 선생님은 인형을 만드는 모임의 제일 중요 포인트는 바느질하는 동안 함께 나누는 수다라고 하셨다. 회차가 거듭될수록 바느질에 자신이 없다고 말했던 몇몇 회원들은 자신감을 얻은 듯 보였다.

두번째 프로그램은 퀼트가방 만들기. 발도로프 인형만들기 보다 문화나눔 식구가 더 많이 늘었다. 총 15명이 자신이 원하는 디자인에 따라 조각패치 사각가방과 꽃무늬 보스턴백을 완성했다. 역시 한 땀, 한 땀 세심한 노력과 정성이 들어가야 하는 작업들이었다. 가방모양과 색상은 똑같지만 각자의 성격

과 숨씨에 따라 다른 느낌의 가방들이 탄생했다.

세번째 프로그램은 리본공예, 네번째 프로그램은 세제가 필요없는 친환경 수세미 만들기, 이후, 천연화장품 만들기, 네일아트가 진행되었고, 최근에는 겨울철 맛이 목도리와 넥워머를 뜨면서 따뜻하게 겨울을 보내고 있다. 밀반찬 레시피도 공유했고, 각자의 집을 돌면서 감자탕, 비빔밥 등을 함께 만들어 먹었다.

문화나눔에 대한 의견은 서로 조금씩 다르다.

“제가 생각한 문화나눔과는 다소 다른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되었어요. 문화나눔의 초기 멤버들은 서로가 할 수 있는 재주를 나누는 사람들이니 자신들이 가진 재주를 나눌 마음으로 모여야 하죠. 그런데 일부 참여자들은 배우기만 했어요. 그리고, 여러가지 프로그램이 짧은 기간동안 진행되다 보니, 깊이 있는 교육이 되지 못하는 것도 아쉬워요. 다음해에 문화나눔을 진행한다면 여러가지를 보완해서 진행하고 싶어요.”(강현희)

“참여자들이 모여서 송년회할 때, 내년에도 문화나눔에 계속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어봤어요. 자부담이 더 생길지도 모르는데 할 생각이 있는가 했더니 다들 괜찮다고



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내놓을 재주가 없어서 고민이라고 해서, ‘간식제공’이라던가 ‘장소제공’ 같은 것도 모두 넘실을 받을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알려줬죠.”(이영란)

이상훈 총감독도 지난 송년회 자리에서 나온 이야기를 전해주었다.

“프로그램이 여러가지니까 모두 좋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온 이야기가 ‘내가 가진 이 재주가 과연 가르칠 정도가 되는지 잘 가늠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1월엔 사진을 배웠던 주부님이 컴퓨터로 슬라이드쇼 만드는 법을 가르치고, 예전에 종이접기를 배웠는데 그것도 해보겠다’고 하셨어요. 분명히 참가자들 하나하나가 가진 재주를 내놓아야 하지만, 반면에 자신이 어떤 재능이 있고 그것이 문화나눔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할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꾸준히 진행하다 보면 해소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처음에 강사로 참여했어도,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수강 회원이 되었어요. 이 구조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주민들이 직접 작성한 기획서

문화나눔과 함께 진행된 문화배움터는 경기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진행된 프로그램이다. ‘2010년도 문화예술진흥지원금 정기공모 지원사업’ 중 ‘지역문화예술활동지원’ 분야에서 선정되었다. 문화배움터 프로그램은 ‘성인대상 밴드’와 ‘생태탐험 및 생태미술’로 구성되었다. 성인대상 밴드는 다수의 아파트 주민들이 신청했으며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날에는 60대 어르신부터 30대 애기 엄마까지 10명의 아파트 주민들이 모였다. 이후 13명까지 참여회원이 늘었다.

생태탐험과 미술의 경우, 2007년부터 지리적, 생태학적으로 보고라 할 수 있는 은행주공아파트에서 지속적으로 진행되었고 몇 년 동안



핵심멤버들이 프로그램을 이끌어갔다. 생태탐험강사는 김현주 님, 생태미술강사는 현직 미술강사로 활동 중인 하은영 님의 적극적인 참여가 단단히 한 몫을 했다. 매주 8명의 주민들이 꾸준히 모여 남한산성과 은행주공 아파트로 생태탐험을 떠났고 곤충, 새, 꽃 등의 생태 그림을 손수건과 앞치마, 생활 소품에 그리면서 생태지식과 그림 실력을 동시에 쌓아갔다.

‘2010 은행주공 문화배움터’가 준 여러 의미 중에 중요한 점을 몇 가지 꼽아보자면 첫째, 주부들이 지난 3년간 사업에 참여하면서 주체로서 스스로 기획서를 준비해 선정된 공모사업이라는 점이다. 은행동 팀장을 담당했던 이상훈 총감독은 ‘주부들은 행정처리와 서류 작성에 대해서 공포감이 있다’며 ‘행정 처리시 지역활동가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 전체를 기획하고 서류를 작성해주는 것 보다 스스로 기획하고 작성해보게 한 후, 어려워하는 지



점에서 결합하여 함께 일을 꾸려가야 한다' 고 조언한다.
둘째, 새로운 주민들이 풀장환상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는 점이다.
문화배움터와 문화나눔에 참여한 주민들에게 풀장환상에 대한 접
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현재는 두 프로그램 모두 20차에 걸친 교육이 모두 끝났다. 내년에도
할 의향이 있다면 각종 문화관련기관의 기금을 신청할 의향도
있다고 한다. 참여자들의 교육 만족도는 높은 편이었으나, 동아리
를 자립적으로 이끌고 나가려는 의지가 다소 부족해, 참여자들에
게 동기부여하는 방법을 더 고민해야 한다.

이영란 님께 이 일을 하면서 느꼈던 점에 대해 물었다.
“저는 이런 여러가지 활동이 개인적으로 힘든 점도 있지만 좋은
점도 많다고 생각해요. 우선 무언가를 배울 수 있고요, 또 다양한
사람들 만날 수 있죠. 제가 어디서 이상훈 팀장님처럼 성남지역의 미
디어 활동가, 화가, 문화재단 분들을 만나겠어요? 여러 분야의 사람
들을 만나니까 시야가 폭넓어지는 것도 느끼고... 여러모로 좋아요.”

은행동을 맡은 이상훈 총감독은 은행동 풀장환상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다.
“이번에 문화나눔이 진행된 모습을 보면서 교육품앗이, 공예품
앗이, 요리품앗이 등 여러 장르, 분야별로 확장해서 진행해보는 것
도 무척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마무리하면서 가장 높은 금액의 넘
실을 가진 회원과 가장 적은 회원을 뽑아서 뭔가 보상하자고 제안
했어요. 많이 가진 회원은 그만큼 많이 공헌했으니까, 적은 회원은
그만큼 많이 들은 결과니까요. 2010년에도 운영위원회, 주민들께서
잘 이끌어나가셨으니 2011년에도 잘 해나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CHAPTER 3

연결해서 해볼까?

지역 네트워크와 협력한 이야기

링크 (Link)

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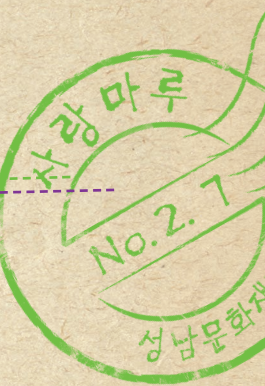
1. (사슬의) 고리.
2. 결합시키는 사람[것] : 연결, 유대, 관련 <between>

vi.

1. 연결[연접]하다, 잇다 <together, up;to, with>
2. <손을> 맞잡다. <팔을> 끼다

vt.

1. 연결되다. 이어지다 <up, together with>



주민 또는 사랑마루가 링크가 되어
지역과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결합했는지
각 동네별로 협력하고 함께하는 단체는 어디인지 알려드릴게요.

2010년은 동네만들기 사업이 진행된 각 동네마다 연계 가능한 관공서, 학교, 기관 및 단체 등과 함께 네트워크를 맺은 것이 두드러진 한 해이다. 풀장환상에서는 재미난 한방치료법에 대한 강의를 들을 수 있었고, 원다방에서는 성남방송고등학교 학생들이 DJ가 되었다. 섬말사랑방이 개최한 10월 문화제에서는 지역 내 여러 단체가 함께 참여하여 매우 풍성한 행사가 되었다. 이것이 모두 네트워크의 힘이다.

링크 (Link)

최근 등장한 네트워크 이론 중 ‘링크이론’라는 것이 있다. 링크이론에 따르면 세상의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한다. 흔히 ‘여섯 사람만을 거치면 다 아는 사이’라는 말처럼 두 개체끼리 서로 새로운 링크가 생기면 각 개체별로 기존에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가 이어져 다차원적으로 확대되고 중첩된다. 여기서의 확대는 양적인 확대와 더불어 네트워크를 맺으면서 또 다른 개체들과 링크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의미이다.



여기서 허브(Hub), 커넥터(Connector)의 역할이 중요하다. 허브(Hub)는 엄청나게 많은 수의 링크를 가짐으로써 경로를 짧게 만든다. 따라서, 많은 링크를 가진 허브일수록 더 많은 링크를 가지게 되어 많은 링크를 확보한 소수의 허브만 잘 알면 어떤 링크든 찾아갈 수 있다.

커넥터(Connector)는 모든 계층을 막론하고 친구나 아는 사람을 만드는데 있어서 귀재인 소수의 사람들이다. 사회에서 소수의 커넥터들이 엄청나게 많은 수의 사람들을 알고 있어 각 구성요소간의 거리를 상당히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동네만들기 사업의 요소를 링크 이론의 각 구성요소로 정확히 짚지우기는 어려우나, 주민들과 운영위원회 그리고 사랑마루는 커넥터, 각 동네별 사업관련기관 및 연계가능성을 가진 지역단위의 단체들은 모두 허브라 볼 수 있다. 따라서, 동네 사랑방은 주민과 맞닿아 있는 중요한 허브이다.

허브를 찾아라

사랑마루에서는 주민 주체의 동네별 사업을 지원했고 그 지원책의 하나로 동네 안에서 연결할 수 있는 다른 기관 및 단체, 커뮤니티를 소개하면서 이어나갔다. 주민들이 ‘이런 것도 하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를 내면 사랑마루는 연계 가능한 기관과 단체를 주민들과 함께 찾았다. 대체적으로 실생활에서 필요한 전문지식 분야를 알고 싶을 때, 우리 동네 안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때, 또는 이어질 두 곳에 서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할 때에 네트워크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동일한 관심사를 가진 개체들이 네트워크해서 뭉치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힘있게 전달할 수 있다. 또는 다른 관심사라 할지라도 지향점이 통하는 개체들끼리도 네트워크할 수 있다.

- * 처음 네트워크를 맺으려 할 때, 삼기 쉬운 기준
 - 같은 동네에 있는 다양한 성격의 기관과 단체
 - 동네 주민이 참여, 후원하고 있는 단체
 - 동네별, 사회별 이슈에 대해서 같은 고민을 하는 단체
 - 서로 도움이 될만한 자원이 있는 단체

따라서, 제일 처음 우리 동네에서 함께할 수 있는 허브 또는 커넥터를 찾는다. 사랑마루에서 동네에 주민들의 커넥터를 찾을 때, 제일 처음 찾은 곳은 주민센터 또는 주민자치센터였다.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동네 일꾼들을 직접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동네 사정을 훤히 잘 알고 있고 주민들을 모아서 해낼 수 있는 응집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동네 소식을 전하고 퍼지게 하는 메신저 이자 스피커이다.

또, 지역 내에 있는 다양한 기관 및 단체를 찾아서 동네사업에 대한 의견을 듣고 정보를 얻었다. 지역센터를 두고 전국에서 활동 중인 기관 및 단체들은 계층, 대상, 분야별로 특성화되어 있다. 특성화된 만큼 전문화 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고급정보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었다.

본 사업의 동네별 네트워크 소개

은행동

- 성남의료생활협동조합

지역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의료, 건강, 생활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자는 목적으로 설립되었

다. 2010년에는 은행주공아파트 주민들을 위해 2차례 ‘의료생활 무료강좌’가 열렸다. 1차는 사상체질, 2차는 일상생활에서 활용가능한 생활치료법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 주민생활협동조합

풀장환상 운영위원들, 문화나눔과 문화배움터의 참여자들이 조합원으로 활동 중인 주민생활협동조합의 경우, 풀장환상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2011년에는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중이다.



- 은행동 작은도서관

은행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주축이 되

어 개관한 작은도서관은 지역 주민과 어린이들을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풀장환상 문화나눔의 다수 회원이 작은도서관에서 활동한 어머니들이다.

상대원시장

- 성남 함께하는주부모임

1996년에 설립된 ‘성남함께하는주부모임’은 주부들이 모여서 ‘함께 잘 사는 법, 우리 아이들 함께 잘 키우는 법’을 실천하자는데 목적을 가지고 있다. 여러 개의 품앗이를 운영하여 친목도모와 더불어 지역 내 여러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상대원동 아이들을 위해 ‘책이랑 도서관’을 운영 중이다. 함께하는주부모임은 2008년, 2009년 원다방의 운영 주체였으며, 회원 대다수가 DJ 및 각종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 상대원시장 상인회

상대원 3동에 위치한 상대원시장 상인들의 모임으로 원다방 후원회 조직에 힘을 모으고 있다. 상인들은 후원

회원이 되어 매월 월정액을 후원하면서 원다방을 응원하고 있다.

- 상대원 2동, 3동 주민자치센터

매월 작은음악회 진행에서 상대원 2,3동 주민자치센터의 참여와 결합에 힘썼다. 노래교실의 회원들이 노래자랑에 참여했고, 댄스, 실버댄스, 판소리, 민요 등 갖가지 프로그램 수강자들이 원다방 무대 위에서 갖가지 재주를 뽐냈다. 주민자치센터 위원장님 두 분 모두가 원다방 운영위원이다.

- 중원청소년수련관

중원청소년수련관의 '청소년라디오방송단, 조이라디오'는 방송에 관심이 많은 청소년들이 자발적,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인터넷라디오방송국을 이끄는 청소년 자치기구이다. 원다방 라디오 방송 참관, 작은음악회의 사진 및 영상촬영을 돕고 있다. 2011년부터 장미라 방송국장님이 결합하여 라디오 교육을 준비 중이다.

- 성남시 청소년지원센터

건강하고 창의적인 청소년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성남시 청소년지원센터는 청소년의 정서적 활동을 적극 돕고 있다. 2010년 겨울, 미디어와 방송에 관심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원다방에서 주최하는 미디어 교육이 진행 중이다. 점차 원다방 방송에 참여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 성남 방송고등학교

하대원동에 위치한 성남방송고등학교는 방송특성화고등학교이다. 매주 금요일 원다방 '나도 DJ' 코너에서 'PD동아리'에서 활동하는 1,2학년 학생들이 DJ와 엔지니어를 동시에 맡고 있다. 학생들의 재치 있고 발랄한 진행 때문에 인기있는 코너 중 하나이다. 방송에 대해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 라디오라는 매체와 지역방송을 몸소 접하고, 직접 출연·진행해 자신감을 얻어 본인들의 꿈을 실현시키는데 도움을 주고자 연계를 시작하였다. 학생들은 원다방 관련 행사가 있을 때마다 즐겁게 참여하고, 사진 및 비디오촬영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

- 성남여성의 전화

여성인권단체인 성남여성의 전화는 모든 폭력으로부터 여성 인권을 보호하고 가정과 사회에서 평등한 지위를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성의 복지, 성(性), 가족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주는 코너에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출연 중이다.

도촌동

- 도촌동 주민센터

도촌동 주민센터는 섬말 사랑방을 기획할 때부터 방문해 장소협조를 구했다. 섬말 사랑방이 개최한 2차례의 베품시장과 문화제에 이석환 동장님과 김미자 주민자치위원장님이 참석해주셨다. 섬말사랑방을 무척 의미있는 모임이라며 앞으로 주민센터 차원에서 많은 협조를 약속해주셨다. 11월에는 새롭게 이전한 주민센터에서 2010년 동네만들기 지원센터 사랑마루 프로젝트를 마감하는 '작은 발표회'가 열렸다. 섬말사랑방 운영위원장 이정은 님은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되어 맹활약 중이다.

- 새날아동상담센터 도촌센터

아동, 청소년 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새날아동상담센터는 지역 아동센터 운영과 결연 사업, 부모 상담, 아동 상담, 적성 감사, 미술 치료, 청소년 공부방 등을 운영한다. 도촌동을 새로운 사업대상지로 선정했을 때, 프로그램을 진행할 장소가 필요했다. 이 때, 새날복지회의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도촌센터를 방문했고, 흔쾌히 장소

를 협조해주셨다. 섬말사랑방, 사랑마루 행사 때도 빠짐없이 참석해주시는 고마운 곳이다.

- 도촌초등학교

도촌초등학교는 2010년 섬말사랑방 프로그램 중 탈춤반 프로그램을 위해 체육관을 제공했다. 여름날 도촌초등학교 체육관은 가족들의 넓은 배움터와 아이들의 넓은 놀이터가 되었다.

- 섬마을 5단지 입주자대표회의

도촌동 아이들을 위한 도서관을 기획하고 마땅한 장소를 찾지 못했을 때, 5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506동 1층 공간을 제공했다. 적극적이고 진취적이었던 5단지 입주자대표회의는 섬말 모든 주민들에게 개방하는데 찬성했고 섬말사랑방과 사랑마루는 바로 공사에 들어갔다. 12월 초 '함께하는 어린이도서관'의 개관 후에도 꾸준히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한 곳이다.

- 도촌동 상가 상인회

2회 열린 어린이 벼룩시장에 만두와 음료를 후원했다. 섬말사랑방에 대해 관심과 호감을 보이는 지역 단체 중 한 곳이다.

- 도촌지역아동센터 (한국청년연합회 성남지부, 성남 KYC)

10월에 열린 '2010 섬마을 문화축제'에서 도촌 YMCA와 오카리나 연합팀을 구성해서 참가하였다. 섬말사랑방에 대한 격려와 조언을 하는 고마운 단체이다.

- 도촌 YMCA (성남 YMCA 시민사업부)

도촌동에서 동네만들기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생각했을 때, 처음 찾아간 곳이다. 도촌동의 전반적인 정보를 알 수 있었고, 언제든 협조를 약속했다.

- LH 공사 도촌지구

'함께하는 어린이도서관' 개관 시, 섬말사랑방 앞으로 1,000여 권의 신간 도서를 기증해주었다.



삼평동

- 보평초등학교 학부모 운영위원회

삼평동의 동네일꾼 발굴을 위해 보평초등학교를 찾았을 때, 서길원 교장선생님은 학부모 운영위원회와의 만남을 주선해주셨다. 학부모 운영위원회와 연계하여 '나들이공원 예술제'의 모든 기획과 진행을 권유했고, 그 결과 주민들이 모여서 결성된 13팀의 공연과 전시, 어린이 벼룩시장까지 성황리에 열렸다. 사랑마루 측은 음향장비와 홍보인쇄물, 기념품을 준비했다.



- 붓들마을, 백현마을 입주자대표회의

빠른 시일 안에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삼평동 아파트 각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에게 협조를 구했고 적극적인 홍보를 받아주셨다.

전체 네트워크

- 성남 민예총

사랑마루에 참여하는 일부 작가들이 소속되어 있는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성남지부'는 성남 지역에 대한 애정이 돈독한 토박이 작가들이 활동하고 있다, 각 분야의 두터운 작가층과 더불어 지역사업에 대한 이해가 깊은 단체이다.

- 사랑방문화클럽

문화예술을 매개로 공동체성 회복이라는 같은 모토를 가진 사랑방문화클럽과의 연계는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 초청공연과 연계전시, 강사 섭외 의뢰, 동네만들기 사업에서 만들어진 동아리가 사랑방문화클럽에 가입해서 활동하는 사례 등이 있다.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힘,

'관심'

위의 동네별 네트워크 이외에도 앞으로 연계할만한 수많은 네트워크들이 동네 곳곳에 있다. 지역 내에서 누가 어떤 일을 하는지, 추구하는 목적은 무엇인지, 내 관심사와 맞닿아 있는지, 함께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에 대해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나누면 서로에 대해 신뢰가 쌓이고 일을 도모할 여지가 생긴다. 이 때 제일 중심이 되는 키워드는 '관심'이다. 관심은 네트워크를 이어가는 힘이며 주변을 놓치지 않는 끈이다.



현장스케치 III

삼평동, 그 뜻깊은 시작

날이 무척 맑았다. 나들이공원으로 넘어가는 육교에서 바라본 가을하늘의 구름은 마치 마그리트의 그림에 담긴 구름을 보는 듯 했다.

육교를 통해 나들이공원으로 내려가니 처음 보게된 것은 아이들의 좌판이었다. 약 40여개의 좌판들이 나들이공원 둘레를 감싸고 있었다. 돛자리 한 켠에 앉은 아이들은 바쁘게 손님들을 맞이했고, 쓸만한 물건들이 제법 많아 서 구경 나온 엄마와 아이들은 좌판 하나하나씩을 꼼꼼히 챙겨보고 있었다. 나도 첫 가게에서 예쁜 보관함을 하나 발견해서 500원, 그 옆 가게에선 미니 타올을 500원에 샀다. 중간 쯤에 위치한 좌판에 마녀모자와 망토를 두른 두 명의 학생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녀들의 가게이름은 '마녀 쌍둥이네 가게'. '각종 옷, 장난감, 책이 많이 있습니다'라며 홍보문구까지 곁했다. 한복과 원피스를 옷걸이에 정리해 줄에 걸고, 책은 한 옆에, 가운데는 푸우와 키티 인형이 주인을 기다리며 누워있었다. 찬찬히 얼굴을 살피니 서로 똑 닮은 일란성 쌍둥이 자매였다.

어린이 벼룩시장의 앞쪽에는 넓게 펼쳐진 나들이공원의 잔디광장과 무대가 있었다. 무대에서는 공연을 위한 리허설과 음향세팅이 한창이었고, 나무 중간중간에는

아빠와 함께 쓰는 Eco-flow 보고서 전시와 보평초등학교 친구들의 수학여행 사진 등이 전시되어 있었다.

방명록 겸 감상을 적는 큰 게시판에는

‘사 진 이 정말 좋네요.’

‘우리학교는 이런 프 로 그 램 들이 많아서 좋아요.’

‘선생님들~ 언제나 힘 내 세 요.’

‘너무 귀여워요.’

‘나는 여 기 갔다.’

등등 다양한 소감과 감상을 볼 수 있었다.

한 눈에 들어오는 현수막에는 ‘환영합니다. 만남과 나눔이 있는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반갑습니다! 정
이 넘치고 희망찬 미래가 있는 우리 동네’ 라 적힌 글씨가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오늘 열리는 ‘나들이공원 예술제’는 봇들마을 7,8,9단지와 백현마을 2단지, 보평초등학교, 보평중학교, 보평고등학교가 모두 함께 기획과 준비에 참여한 행사이다. 2010년 동네만들기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는 동네로 ‘삼평동’을 선정했고, 주민들 중심의 운영위원회의 단초를 마련해서, 2011년부터는 조직된 동네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이 행사를 처음 제안하기 위해 보평초등학교를 찾아가 서길원 교장선생님과 논의한 결과, 보평초등학교 운영위원인 한예찬님을 소개받았고, 이후 각 단지별 입주자대표회의와 주변 학교들이 결합한 ‘나들이공원 예술제 준비위원회’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공연시작시간이 가까워지면서 리허설하는 무대 주변이 **분주해졌다.**

삼삼오오 모여서 동작을 연습하고

동선을 맞추는 친구들, 독주를 위해서 나무 밑에서 혼자 **연습하는 모습** 등을 볼 수 있었다.

장터 구경을 한 주민들은 삼삼오오 **무대 앞의 잔디밭**에 앉기 시작했다.

아파트 단지여서 그런지 대다수가 가족들이었다.

드디어, 나들이공원 예술제의 막이 열렸다.

본 공연에 앞서, 오늘의 모든 기획과 준비를 총괄해주신 한예찬 선생님이 무대로 나와, 행사를 함께 준비한 각 단지 입주자대표님들, 학교 교장선생님들, 성남문화재단 관계자들을 소개하고 축하인사를 들었다. 오늘 모인 이 행사는 주민들이 주도하고 기획한 행사로서 큰 의미를 갖는다는 말씀과, 행정구역으로 나뉘었지만, 우리는 같은 동네 주민이며, 아이들이 같은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이라는 이야기, 예술제를 거듭하면서 계속 마을축제로 키워나가자는 이야기들을 해주셨다.

본 공연이 시작되자, 오늘 예술제의 사회를 맡은 보평중학교 윤찬영, 김시아 학생이 앞으로 나왔다. 갑자기 사회제의를 받은 거라 준비기간이 짧아 준비하기 힘들었을 텐데 순서와 출연자 소개를 꼼꼼히 챙겨가며, 잘 이끌어갔다.

축하공연으로 첫 순서가 시작되었다. 어린이 뮤지컬팀 ‘J-Kids’가 다채로운 율동과 신나는 노래를 불러주었는데, 유명 무대에서 40여 회의 공연을 한 베테랑 팀이었다. 다음 순서로는 봇들마을 9단지의 김춘희님과 아들 박효석 군이 나와서 ‘우리동네 판교’에 대해서 설명해주었다. 다음 순서로는 중창과 기악독주, 기악합주와 무용, 그룹사운드 연주 등, 총 13팀의 공연이 기다리고 있었다.



어린 최문정 양은 작은 키와 다르게 뛰어난 바이올린 독주 실력을 보여주었다. 리허설 시간에도 열심히 연습하는 표정을 보니 살짝 긴장한 것인지. 반대로 잘 해내겠다는 마음의 다부진 표현인지 분간하기 어려웠는데 아무래도 후자가 맞았나 보다. 이어서 백현마을 2단지의 김기표님은 우



리나라 악기인 소금으로 '아리랑'과 '닐리리야'를 들려주었다. 다음 순서는 김기표님의 따님인 김하연 양과 친구들 배준영, 이정은 양의 중창이 이어졌다. 아빠의 소금 연주 순서에서는 하연이가 핸드폰 사진을 연신 눌러봤는데, 하연이가 무대에 서니 아빠 김기표님의 카메라가 쉴 줄을 모른다.

첫 예술제를 열면서 보평초등학교는 '나들이공원 예술제 참가자 모집'의 신청서를 학생들 집에 보냈고, 거기서 신청한 총 13팀이 무대에 설 수 있게 된 것이다. 나중에 인터뷰들을 해보니, 공통적으로 '친한 친구 또는 같이 악기 배우는 친구들끼리 나가자'고 해서 팀을 만들어 나온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7단지 전호준 군과 8단지 이수빈 양은 각각 바이올린 독주를 준비했는데, 준비한 바이올린 소나타, 가브리엘의 오보에, 미뉴엣은 선선한 가을날과 무척 잘 어울렸다. 사랑스러운 분홍색 발레복을 입고 '토끼들의 소풍'을 보여준 바니걸스 소녀 3명, 남예림(2단지), 이미래(9단지), 임상화(8단지), 모두 함께 발레를 배우는 친구들이라고 한다. 무척 귀엽고 양증맞은 동작으로 많은 박수를 받았다.

'MR 테이프만 준비되면 무조건 나가겠다'고 해서 참가하게 된 보평초등학교 4학년 동갑친구들 김시은(2단지), 박세린(9단지), 이지현(2단지) 양은 중창을 보여줬다. 가사내용에 따른 수화까지 함께 보여주는 무대여서 조금 더 색다른 느낌의 무대를 연출했다. 수화를 하는 손 모습은 훈훈한 마음까지 느끼게 했다.

극석에서 축하공연을 해주신 분이 있었다. 현재 성악가로서 강의를 하고 있는 김성수



선생님은 10월, 가을에 열리는 오늘 예술제를 축하하며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를 들려주었다.

푸른 가을하늘,
노랗고 갈색의 나무들 사이로 비치는 햇살,
성악가의 목소리가 한데 어우러진 나들이 공원은
특별한 정취가 짙게 드리워졌다.
객석에서 뜨거운 박수가 터져나왔다.

이어서 가족들의 합주무대가 이어졌다. 아빠 이진영(2단지) 님, 아들 이무규 군, 딸 이소현 양이 각각 파트가 다른 리코더로 '기리기'를 연주했다. 이진영 님께서는 '아이들이 다른 악기들을 다룰 줄 아는데, 가족이 함께 참가하자고 해서 리코더 합주로 준비했다'고 한다. 사회자들도 앞으로 열릴 예술제에서 가족팀들의 더욱 더 많은 참여를 바란다는 말을 잊지 않았다.

친구들의 연주에 중창을 하는 김민서, 김하연(9단지) 양의 '샹젤리예', 플룻과 바이올린의 합주를 준비한 김태정, 이어진, 황소영(8단지) 양의 무대가 이어졌다. 무대에서 내려온 아이들에게 엄마들은 '모두 잘 했어. 열심히



연습했잖아. 오늘 참 잘했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아이들은 준비한 만큼, 무대에서 다 보여주지 못해 아쉬워했지만, 엄마들의 격려로 금방 기운을 차렸다.

그룹사운드 연주인 김시웅(2단지), 신범기(2단지), 양진석(2단지), 정동훈(7단지) 군은 친한 친구들끼리 각자 맡은 악기들을 상당기간 연주한 경력을 가지고 있었다. 요즘 유행가 중 가사를



개사하여 ‘놀게 해줘요’라는 익살맞은 노래로 바꿨다. 가사내용이 어린이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공부에 억압되지 않고 자유시간을 가지고 싶어하는 학생들의 바람이 들어있었기 때문이다. 무대에서 내려와 보평초등학교 서길원 교장선생님과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스스럼없는 사제시간으로 보였다.



마지막으로 성남시에서 활동하는 ‘열매하나 중창단’의 축하공연이 있었다. 열매하나 중창단은 ‘2010 KBS 창작동요대회’에서 최우수작곡상, 우수상을 수상한 실력파이다. 수상의 영예를 안겨준 ‘신나는 여행’이라는 경쾌한 곡을 끝으로 2시간 넘는 ‘나들이공원 예술제’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주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준비하는 행사인 점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었는데,

이렇게 높은 참여율과 참여자 모두가 자율의지로 모인 팀이라는 점이 더욱 더 큰 의미를 지니게 했다.

내년 이맘때에 다시 열리게 될 2011 나들이공원 예술제에서는 더 많은 참여팀과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어우러지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강한 믿음까지 생겼다.

안내 브로셔에 써 있는 글로써 마지막을 대신하려 한다.

‘아름다운 마을과 정겨운 이웃이 사는,

지역공동체를 꿈꿔 봅시다.’



2009년, 나들이공원(Edu-Park)을 중심으로
 봇들마을의 일부와 백현마을의 일부가 이웃이 되었습니다.
 지역의 구분은 지리학적으로 또는 행정 편의적으로 나누기도 하지만
 우리 지역과 같이 공원과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공동체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이번 나들이공원 예술제를 계기로
 우리 지역 커뮤니티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보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역사회는 건전하고, 건강해야 되며,
 아이들이 안전하게 마음껏 활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지역주민 모두가 앞장서서 아름다운 마을을 만들게 되면
 정겨운 이웃으로 희망찬 미래를 열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는
 지역주민 모두의 자발적 참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 마을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가야 합니다.



CHAPTER 4

왜 이 일 하세요? 매개자와 활동가 이야기

누군가 묻습니다.
 "왜 이 일 하세요?"
 주저없이 대답합니다.
 "좋아서요"



동네만들기 지원센터 사랑마루 스텝들의
 속 마음을 솔직하게 담았습니다.
 '우리는 왜 이 일을 하는가?'

매 개 자

그 이름에 대하여

문화예술교육 매개자, 활동가, 생활예술 코디네이터 등 생활문화공동체 사업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부르는 명칭은 사업별, 사업추진기관 등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그 범위와 경계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이렇게 된 이유를 유추해보면 사업을 기획하거나 참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각각의 영역에서, 해야 할 일의 경계와 범위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어서이다. 예를 들어 행사에 필요한 짐을 날라야 할 때, 이것은 주민들의 일인가, 매개자의 일인가?

사랑마루는 2009년 문화예술기획자 양성과정 ‘나도야 문화예술 코디네이터’라는 주제로 ‘진정한 동네만들기는 주민과 활동에 관심 있는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사업을 수행한다는 것을 뜻하며 이 과정을 통해 육성된다’는 결론을 내린 후, 누가, 어떻게, 어떤 교육내용으로, 누구를 교육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는 자리를 2차례 마련한 바 있다. 그 결과 사업 참여자들이 행정적인 부담을 안으며 자발적으로 공적 영역에서 활동하는 이유에 주목해야 하고 활동 과정 내에서 보람을 직접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점, 예술을 도구삼아 지역의 문제의식을 풀어야 한다는 점,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본인의 역할을 스스로 구상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2010년에는 본 사업의 동네별 주체를 ‘매개자’라 지칭하려 한다. 매개자라는 용어의 사전적인 정의는 ‘둘 사이에서 양편의 관계를 맺어 주는 사람이나 물건. 또는 그런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문화예술교육계에서 처음으로 대두된 ‘매개자’는 ‘예술 그 자체의 교육을 넘어 예술을 통한 창조적 삶을 교육한다’는 측면을 강조하며 길잡이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개념정리 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한 학습자 또는 교육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관련 행정기관 담당자, 기획자, 활동가, 코디네이터, 예술강사 등, 참여하는 모든 주체에게 성장의 경험을 공유한다는데 무게를 신는다.

제일 위에 든 예처럼 각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매개자의 범위는 매우 다르다. 동네만들기 사업으로 대치해 본다면 주민과 운영위원들 입장에서는 지역활동가, 작가, 성남문화재단, 사랑마루 모두를 매개자라 정의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사랑마루의 입장에서는 각종 커뮤니티 활동을 하고 있는 주민들은 잠정적인 매개자, 운영위원들은 이미 활동 중인 매개자에 속한다고 생각한다.

누구 를 위 한 사 업 인 가?



이 사업에 대한 인터뷰를 요청했을 때, 본 사업에 대해 불편한 시선을 토로하신 분이 있었다.

“이 사업을 하다보니 우리 모두가 사업의 재료가 된 것 같아요. 그 시선이 정말 불편해요.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에 대해서 자꾸 고민하게 되고요. 우리들은 다만 모여서 즐겁게 놀자고 시작한 일인데 말이죠.”

해가 거듭될수록 사업을 열심히 주도했던 주민과 참여자들이 다음과 같이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금 하는 이 일이 나를 위한 일인가? 아니면, 사랑마루 사람들의 사업인가? 아니면 성남문화재단의 사업인가?’

이전에 상대원시장 원다방도 비슷한 문제를 겪었다.

“상대원시장 원다방의 경우, 사업이 시행된 지 1년 정도 지나니까 주민들 스스로 ‘내가 사업주체인가, 사업대상인가’에 대한 고민이 생겼고 또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관계’에 대한 이야기로 실마리를 풀어나갔죠. 자칫하면 사업 중심으로만 이야기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특히 작년 도촌동 섬말사랑방에서는 처음의 순수함, 관계 맺기로 발전시키는 방향에 관심을 많이 뒀죠. 우리 사랑마루 스태프들도 진심으로 열심히 했고요. 사업이나 프로그램 진행은 누가 와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사랑마루 총감독 이상훈)

“상대원이 동네만들기 사업 중에 시장 안에 있으니 특수한 지형이 있어요. 2010년에는 원다방이 이전보다 조금 더 발전된 형태가 되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상인과 주민, 상인회, 지역 단체, 라디오방송국 등, 서로의 관계들을 돈독하게 만들어야 가능한 일이지요.” (원다방 팀장 한유진)



본 사업의 사업대상지는 최종적으로 성남시 전체이다. 그 동네를 바꾸나갈 주체는 주민이고, 이런 활동을 함께 할 주민들을 찾아 지원하는 역할은 사랑마루와 성남문화재단의 일이다. 지원형태가 사업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주민들을 찾아가고 있으며 성남문화재단은 지역 내 문화사업으로 성과를 내야 하는 기관이다.

나 또한 그 동안 길지 않지만, 짧지도 않은 문화기획자로 활동하면서 ‘사업’이라는 이름의 여러 가지 일을 수행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 둘씩 고민이 생겼다. 내가 일을 위한 하나의 도구로 전락한 느낌이 들고, 밖에서 죽어라 활동하는 사람은 따로 있는데 행정처리 하는 사람들은 책상에 앉아 본 사업에 대해 실행하는 덕을 가져가는 것 같고 예산을 투입한 기관에서는 본 사업의 실효성만을 중시하여 대외적으로 알리는데만 치중하는 것으로 보였다.

내 안에서 가진 오해를 이해하게 된 것은 그간 내가 벌인 여러 활동에 참여한 주민들과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많이 느끼면서부터였다.



‘몸도 힘들고, 나의 시간이 자유롭지 못하고, 혼자 책임을 져야 하는 기분이고 말이야. 그러면서 도대체 왜 이 활동을 하는 건데? 친구를 만날 주말도 반납하고 또 그들을 대하듯이 가족들에게 그리 친절하지 않으면서 말이지.’ 이어서 또 다른 내가 대답한다.
‘그들이 여기에 와서 무엇인가를 얻어가는 모습이 그냥 좋아. 이걸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니까. 하고 싶은 일이기도 하고, 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



추운 날 나와서 일하느라 고생한다고 사주신 꼬치어묵도,
가끔 안부를 묻는 전화들까지도 모두 고마웠다.
그리고 이렇게 누군가에게 중요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너무 행복했다.
그들과 나는 사업 실행자 이외에 친한 친구가 되었다.

이처럼, 매개자들은 사업 자체에만 집중하는 것보다 활동의 의미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안에서 나오는 결과들은 모두 끈끈한 연대로 이어지며, 실행자와 집행자이기 이전에 우리 모두 사람이므로 인정이 싹트고 서로 중요한 존재, 아끼는 사이가 되기 때문이다.

“이 일은 아마 문화재단의 직원이 함께 했으면 매우 힘들었을 거예요.
사랑마루 여러분들이 바닥 청소, 못 박는 일까지 다 해 주는
이웃집 아저씨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힘들 때 모든 이야기를 다 털어놓고 하고,
또 그랬기 때문에 믿을 수 있어서 그 의견을 따랐던 것이죠.” (은행동 풀장환상 이경진)

“저는 이번 2010년도 도촌동 팀장하면서 편했어요.
왜 편했냐면 욕심을 버렸어요.
도촌동 주민들이 하고자 싶은 것이 무엇일까 만을 바라봤더니
오히려 편해지고 분명해졌어요.
그리고 제 감정과 심정을 솔직하게 전달했고
같이 하자고 했죠.”
(도촌동 팀장 박진영)

위의 인터뷰는 은행동에서 열심히 활동한 이경진 님과 도촌동 섬말사랑방을 담당했던 사랑마루 스텝 박진영 팀장의 이야기이다. 동네에서 운영위원으로 활동한 입장과 사랑마루 스텝으로서 동네 팀장으로 활동한 입장이 다른데도 서로 통하는 부분이 있다. 각자의 입장에서 솔직했다는 점, 자신이 원하는 바를 정확히 요구했고, 서로가 원하는 바를 생각했다는 점이 통한다. 여기서 더 중요한 점은 상대를 신뢰하는 마음에서 기인된 행동이라는 것이다. 동네만들기 사업에서 ‘신뢰’는 관계를 풀어나가는 최고의 열쇠이다.

“저는 기관, 단체장들이 동네 행사에서 축사를 할 때,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마을을 만들자.’ 하는 이야기 보다
‘재밌게 즐기고 노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야 사업을 하는 분들이나 일반 주민들도 마음이 가볍지 않을까요?”
(도촌동 팀장 박진영)

문 화 예 술 매 개 로

관 계 맺 기

문화예술은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내적인 삶을 채우고 인간을 더욱 인간답게 하게 한다. 얼마 전, 서울평화상을 받은 ‘호세 안토니오 아브레우’ 박사가 창시한 아르헨티나의 ‘엘 시스템아 (El Sistema)’는 국가가 지원하는 전(全) 국민 음악예술교육을 일컫는다. 불안정한 사회에서 바르게 자라기 힘든 뒷골목 가난한 아이들의 손에 악기를 들려주고 그 악기를 교육한다. 음악을 알게 되면서부터 아이들 스스로가 내 안의 존엄성을 찾는다. 엘 시스템아는 인성과 감성을 함께 키우는 교육으로 지난 35년간 수많은 학생들을 곱고 순수하게 길러냈다. 이것이 문화예술의 힘이다.

문화예술을 매개로 관계맺기란 앞선 예처럼, 꼭 참여자들의 문화예술적 활동에만 국한하지 않는다. 즉, 문화와 예술을 소통의 도구로 이용하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 섬말사랑방 어머니 두 분은 본인이 가진 재능으로 비누만들기와 어린이 동화연극 강사로 활동했으며, 은행동 폴장환상의 여러분도 문화나눔에서 서로의 강사로 활동했다. 각각의 동네에서 문화예술을 매개로 소통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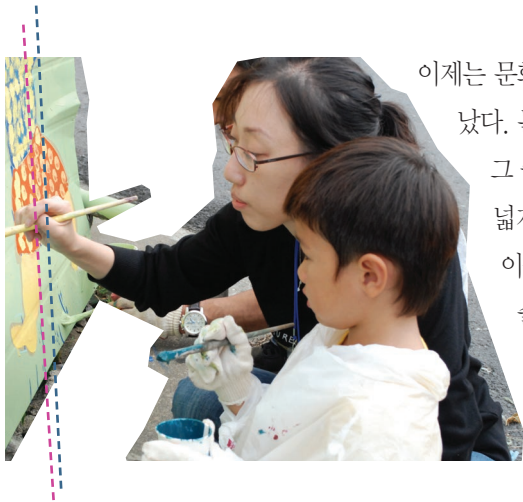
사랑마루 팀의 방법도 같았다. 박영 님은 본인의 전공인 연극을 살려 도촌동 인형극 강사로 맹활약했다. “사랑마루 팀원으로서, 도촌동 인형극 수업은 능동적으로 어우러지는 좋은 수업이었기 때문에 제겐 좋은 경험이 되었어요. 내 전공인 연극과 공동체가 만났을 때, 특징이 드러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사람을 만나는 소통 과정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조금 더 경험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나는 2009년 섬말사랑방의 보조강사로 투입되었다. 아이들과 함께 현장답사 때, 주운 나뭇잎으로 형태를 살려서 풀라쥬를 만들고, 도자기 팝업카드를 만들며 도자기에 대해 공부하는 시간 등을 보냈다. 어릴 때부터 만들기에 관심이 많았고, 나이가 들면서 경험도 생겨서 알고 있는 지식을 어떻게 활용해야 좋을지를 고민했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 아이들과 함께 지식과 즐거움을 나눴다.

이상훈 총감독의 경우에도 2009년에서 2010년으로 넘어가는 겨울, 섬말사랑방의 어머니, 아이들과 함께 미디어 교육을 진행했다. 사진을 찍고, 영상 이야기를 나누며 더 친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사람들과 만나는 것이 좋고, 함께 만나서 뭔가 한다는 것이 좋은 거죠. 무엇보다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 것이 제일이라고 생각해요. 현재 ‘문화공동체 만들기’라고 하지만, 문화예술은 매개체이죠. 중요한 것은 이웃을 바라보고,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을 문화예술과 접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문화예술이 가진 본연의 가치만을 느끼라는 시대는 지났다. 문화예술의 속성인 즐거움에 집중해야 한다. 그리고, 그 즐거움을 맛볼 수 있는 유·무형의 공간들이 더욱 더 넓게 확장되어야 한다. 내가 실제로 사는 동네 안에서 이웃들과 함께 하는 즐거운 생활, 그 매개체가 문화예술로 가능하다는 점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지역 활동가 가 가진 장점

‘지역 활동가는 지역에서 오랜 시간 생활하면서 지역의 정서와 문화에 대한 이해가 높고, 기존 활동 과정을 통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어 주민들과 생활적 공감을 형성해야 하는 마을 만들기 사업에는 타 지역 활동가에 비해 관계성과 지속성 담보에 훨씬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지역 주민자치 시스템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현재의 조건에서 지역 활동가의 성장과 확대는 마을 만들기 사업의 성장과 확대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기에 지역 활동가의 경험, 네트워크 역량, 성향 등 질적인 것과 함께 양적인 차이는 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주민 참여, 커뮤니티 형성, 활동의 지속성 등의 성과를 결정짓는 경우가 많다. 물론 지역 활동가만이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보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지점에 있어 타 지역에서 활동하더라도 전문적 작가의 결합이 필요하다. 하지만 마을 만들기 사업의 중심은 지역 활동가들이 담보해야 지속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위의 글은 ‘성남아트센터 5주년 기념 마을만들기 1차 포럼, 마을만들기, 문제는 주체다! 그 방법론과 대안 찾기’에 발표한 이상훈 총감독의 글 중, ‘왜 지역활동가의 지속적인 활동이 담보되어야 하는가’에 대

한 내용이다. 본 사업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나면서 동네만들기 사업에서 지역활동가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지역의 문제를 토박이 지역민이 다룰 때, 더욱 더 공감하여 함께 행동했던 경험은 누구나 한번쯤은 있을 것이다. 이 이슈는 앞서서 다룬 사랑마루 조직의 안정화와도 궤를 함께 한다. 하지만, 글의 내용처럼 꼭 지역활동가만이 동네만들기 사업을 할 수 있거나 잘 해낸다는 것은 아니다. 외부의 전문가와 작가들의 결합이 새롭고 재미있는 경험이었다고 기억하는 주민들이 있으며 그들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동네만들기 사업은 지역에 대한 애정을 가진 누구나 가능하다. 외부의 지역 활동가나 작가들과의 결합 정도 및 방법을 사업 구성원들과 함께 논의하고 활동 한다면 관심이 있는 누구나 결합할 수 있다. 동네를 향한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있다.

'동네 만들기' 는 되어 가는 과정



어딘가에 참여하고, 속한다는 것은, 그 활동이 내 생활의 일부가 된다는 뜻이다. 사랑마루 스태프들이 생각하는 동네만들기 사업은 무엇일까? 지난 11월에 사업 마감에 맞춰 떠난 사랑마루 워크숍에 나왔던 이야기 몇 가지를 옮겨본다.
“저는 연극 무대 안에서 배우로만 존재하는 것이 점점 답답해졌어요. 삶을

넓히고 싶은데 잘 안되더라고요. 눈과 눈을 마주치고, 몸과 몸이 부대끼면서 서로 소통하는 것, 몸을 부대끼고 살아가는 것이 궁금해서 동네만들기 사업에 더 뛰어든 거죠.”
(코디네이터 박영)

“사업이라는 단어로 표현되고 있지만, 이 단어를 벗어나서 구성원 모두가 수평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체성을 나누기 위해서는 수평관계여야 아니까요.”
(성남문화재단 김지훈)

“주민들간의 친분, 네트워크로만 관계를 맺고 사업을 진행하고 싶은 바람이 있어요. 조직이라는 단단한 모양새를 갖추면 깨질 것 같거든요. 없으면 깨질 것도 없죠. 도촌동 섬말사랑방은 우리나라 전통의 계와 두레, 품앗이처럼 편안하고 느슨하지만 끈끈한 조직이 되었으면 해요.” (도촌동 팀장 박진영)

“저는 동네만들기 사업도 하나의 예술행위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술의 확장된 개념이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행위는 사람의 행위에서 나오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행해지는 행위들은 아름다운 고차원적인 예술일 수 있죠. 이것 모든 것이 동

네만들기 사업에 있어요.”
(원다방 팀장 한유진)

“동네만들기 사업은 주민들이 기회를 얻고 각자의 재능을 발휘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아기자기한 동네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이런 동네라면 아이들이 더 창조적으로 클 수 있고, 사람들끼리 동네를 위해 무엇인가를 해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 사업을 하면서 제일 고민했던 건, 주민들이 서로에게 고맙다는 이야기들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여하는 분들끼리 감사의 표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체 의식’의 부재 때문일 수 있겠다는 고민을 했죠. 그래서 ‘저희들 마냥 헌신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함께 하셔야 해요.’ 라고 많이 북돋았어요.” (사랑마루 총감독 이상훈)

마지막으로 내가 생각하는 동네만들기 사업은 ‘되여가기’이다. 내 생활의 일부로 끌어들이는 동네만들기 사업은 참여자 모두가 ‘동네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닫는다. 활동가들이 통역가가 되어 ‘관’의 언어를 ‘민’의 언어로 전달하고, ‘민’의 목소리를 ‘관’의 언어로 써서 입장을 함께해야 한다.

그리고, 동네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며 나도 활동가로서, 주민들의 친구이자 동반자로서 커가고 있다고 믿는다.

우리 사랑마루 스텝들은 동네만들기 사업을 하면서 ‘사람’과 ‘관계’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다. 각 동네마다 맺은 결실은 사업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정성이 모아진 결과이다. 동네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앞으로도 활동해주실 여러분들께 사랑마루 스텝 모두는 지면을 빌어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보낸다. 이런 마음을 잘 나타나 있는 도촌동 섬말사랑방 책에 실릴 박진영 팀장님의 소감 일부를 발췌하면서 마칠까 한다.

“우리 섬말사랑방은 열정보다 더욱 값진 게 있다.

정이다.

한 집에 모여 바느질하고, 인터넷 쇼핑도 한다.

행사 때면 아빠들이 굿은일을 돕는다.

친정에서 김장 왔다고 보쌈 파티를 한다.

방 한 칸에서 동네 아이들이 뒤엉켜 논다.

앞집 아이가 옆집에 가서 밥 먹는다.

부모가 출장 가면 아이를 뒷집에서 맡겨 재운다.

이러함 속에는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정이 있다.

우리 섬말사랑방에는 프로그램도, 행사도, 공간도 중요하다.

하지만 섬말에는 무엇보다 값진 정이 있다.

그것이 있기에 무엇이든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앞으로도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느꼈던 그 따뜻한 마음들... 깊이 간직할 것이다.”



현장스케치 IV

전주 재밌마을 가던 날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전주기행’이라는 안내장이 붙은 버스 한 대가 성남에서 출발했다. 내려가는 버스 안은 아이들이 떠들고 웃는 목소리가 가을하늘만큼 드높았다.

올 한 해 사업 마무리에 앞서 동네를 초월해서 함께 친해지는 시간을 갖기 위해 준비된 시간이었다. ‘생활문화 매개자 교육과정’이라는 타이틀이 너무 거창했지만, 그런 타이틀과 상관없이 그간 동네사업을 주도하며 애쓴 운영위원들에게 자부심을 심어주고 아주 작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

사실, 이 교육프로그램은 수차례 수정되었다. 기획되었을 당시, 6차 강의의 교육 커리큘럼 형식으로 기획되었으나 마음 한 구석 어딘가 2%의 부족함이 있었다. 현재의 동네 일도 부담감이 있는데, 커리큘럼 안의 내용을 소화하기가 현실적으로 힘들어 보였다. 이후, 몇몇 동네별 운영위원들의 문답을 거쳐 사랑마루 팀에서 결론을 내렸다. 교육 목표를 첫째 동네별 네트워크 구축, 둘째 감사의 마음 전달, 셋째 성남 이외 타 지역의 동네만들기 사업의 체험, 이렇게 세 가지에 두었다.

오늘 우리들의 목적지는 전주이다. 유서 깊은 역사를 지닌 전주는 일찍이 고즈넉한 옛스러움과 현대적인 느낌의 중간에 있는 도시로서 음식이 맛있기로 소문난 고장이다.

은행동 이영란(한승구, 용구), 이경진(이성경, 웅렬) 님 가족과 생태 김현주 선생님, 원다방 박정숙 실무위원장 님과 이길순 엔지니어 님, 도촌동 이정은(김지수) 운영위원장 님과 송금숙(임기수, 혜수) 총무님, 황헌 최남진(황새은, 새헌) 가족, 정승자(최도현, 지은) 님 가족과 사랑마루 스태프들 모두 모여 총 28명이 전주를 향해 함께 떠났다.

전주 재밌마을

전주에서 처음 들릴 곳은 재밌마을. 재밌마을은 전주시 서신동에 위치한 동네로서 ‘고개마을 옆 마을’이라는 뜻을 가진 동네이다. 신도심이 대규모 시가지로 발전하면서부터 구도심으로 된 마을이다. 또, 서신동 아이들이 마음껏 모일 수 있는 ‘문화공간 싹’과 ‘꿈꾸는 아이들 도서관’이 위치한 곳이다.

문화공간 싹은, 서신동에 위치한 **동네 갤러리 겸 문화공간**으로 ‘새로 움트다’는 의미를 담아 우리 사회 곳곳에 **문화의 새 싹**이 되고자 ‘싹’이라고 지었다 한다. 전주기행에 앞서서 답사로 찾아간 재밌마을은 옛날 가옥들과 작은 골목길, 가게들이 거리에 놓인 어릴 적 **우리 동네와 같은 곳**이었다.





또, 길거리에서 채성태 선생님을 만난 아이들은 모두 먼저 손을 들어 반갑게 인사하거나, 하이파이브를 치는 등, 선생님이자 친구로 대했다. 채성태 선생님은 미술작가이자 문화예술교육자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장애인과 다문화가정 대상의 사회 소통 프로그램 등을 기획해서 1997년부터 전주에서 꾸준히 활동했다. 그에게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연계프로그램의 기획과 준비를 부탁드렸다. 그 결과, 재밌마을 중앙에 위치한 텃밭 펜스에 함께 그리는 벽화 프로그램 '더불어 사는 세상'이 탄생했다.

재밌마을 도착

재밌마을에 도착해서 모두 함께 간 곳은 '자매식당'. 자매께서 운영하시는 자매식당은 인근에서 손맛 좋기로 유명한 곳이란다. 오랜시간동안 그 자리에서 주민들의 서민적인 밥상을 지켜 온 자매식당에서 맛갈스

럽고 푸짐한 반찬과 맛있는 김치찌개로 점심을 먹은 우리 가족들은 건너편에 위치한 '꿈꾸는 도서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서신동에 위치한 동네 갤러리 겸 문화공간인 문화공간 짝이 운영하고 있는 꿈꾸는 도서관은 마을 도서관으로 동네 아이들의 놀이터이자 아지트였다.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것을 스스로 기획해 팀을 만들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책 대여와 만남도 스스로 기획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무척 자율적이고 자유로웠다. 채성태 선생님은 우리 성남 동네만들기 가족들과 인사를 나눈 후 오늘 오후에 진행할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했다.

재밌마을 동네 투어

꿈꾸는 도서관의 맞은 편은 서신초등학교의 담벼락인 연두색 철조망 아래에 갖가지 색상이 방울방울 그려져 있었다. 채성태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방울을 바라보게 한 후, 그 하나하나의 방울에 자신들의 희망을 적어보라고 했다. 풀장환상 아이들, 윈다방 DJ들, 섬말 가족들의 희망이 하나하나씩 방울에 남겨졌다. 희망이 새겨진 골목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처음으로 간 곳은 동아 떡 방앗간. 전기를 돌려서 방아를 찧는 재래식 고추 절구가 남아있는 곳으로 멀리서 온 우리들을 위해 맛있는 인절미를 싸 주셨다. 바로 그



옆에는 마을소식 게시판이 있었는데 서신동 아이들이 직접 만든 ‘웃놀이 대화’, ‘어린이 밴드 모집’, ‘물총 노래방’ 등 홍보광고지가 붙어 있었다. 오가는 아이들이 보고 참여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아이들이 직접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붙였다고 한다.



문화공간 ‘씩’으로 자리를 옮겨서 ‘재뜸마을 소개’와 ‘더불어 사는 세상’ 벽화에 대한 준비를 하기로 했다. ‘더불어 사는 세상’을 하기에 앞서, 내가 지금껏 살아온 연대기를 작성하여 지금껏 살아온 매해마다 기억나는 일을 적었다. 아이들은 짧게 살아온 날에 대한 기억을 적었고, 어른들은 살아온 날만큼이나 여러 사건과 감정을 경험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채성태 선생님은 벽화를 그리러 가기 전, 내가 나를 표현하고 싶은 한 가지 색상을 마음 속에 정하라고 했다. 엄마들과 아이들은 함께 길을 나섰다.

둥글게 둥글게

우리가 도착한 곳은 재뜸마을 한 가운데, 둥그렇게 만들어진 율타리 앞이다. 율타리 안은 텃밭이라 각종 야채가 푸릇푸릇하게 심어져 있었다. 이미 율타리에는 채성태 선생님과 문화공간 ‘씩’에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그린 ‘강강수월래’ 밑그림이 그려져 있었는데, 손과 손을 맞잡으며 둥그렇게 그리는 원처럼 오늘 모인 성남 동네 사랑방 여러 사람들과 재뜸마을 사람들이 하나가 되길 바란다는 뜻을 담고 있었다.

아이들의 옷에 페인트가 묻을까봐 우비를 입혔더니, 모두 우비소년, 우비소녀가 되었다. 손을 맞잡은 밑그림 중, 마음에 드는 밑그림에 각자가 정한 한 가지 색상으로 표현하기로 했다. 페인트를 나누고 벽화 그리기가 시작되자 아이들은 신이 나듯 색칠하기 시작했다. 자신의 실루엣과 똑같이 닮은 밑그림을 고른 혜수는 꽃분홍, 기수는 하늘색, 엄마 송금숙님은 개나리색으로 그림을 그렸고 아래쪽에 ‘재롱둥이 도춘 동 섬말 혜수’, ‘재롱둥이 엄마’라고 글씨를 남겼다. 성경이는 멋진 줄무늬 원피스를 입은 소녀를 탄생시켰다. 웅렬이는 엄마 이정진님의 색칠하기를 도와줬다. 지수와 단짖 지은이가 노란 꽃무늬가 있는 소녀의 옷을 모습을 그렸고, 누군가는 ‘골목이 예쁜 재뜸마을’이라는 글씨가 적힌 예쁜 아이를 완성시켰다. 도현이는 맞은 편에 앉아서 오카리나를 불기 시작했다. 내려오는 버스에서부터 도현이의 연습열정은 식지 않았다. 그의 입술과 손끝에서 ‘개똥벌레’와 ‘터’가 끊임없이 흘러나왔다. 원다방 박정숙님은 ‘믿음, 즐거움, 웃음, 따뜻함, 귀여움’ 등의 글씨를 몸 전체에 적었다. 특히 우리 일행 중 제일



현장스케치



막내인 네 살 새현이는 잭슨 폴록처럼 뿌리는 기법의 파형적인 붓끝을 선보여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다. 누나 새은이는 심장부분에 하트모양을 표현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나타냈다. 용구는 주황색 사람으로 표현했는데, 왜 이 색상을 썼냐는 질문에 '재밌는 마을이 가운데 들어와 있어서 주황색 같은 느낌이에요'라고 또박또박 본인의 작품을 멋지게 발표했다. 아이들, 어른들 모두 자신만의 색상으로 지금 마음속에서 느낀 감정을 담아냈다.

저녁엔 역시 장기자랑

산야채 비빔밥으로 맛있게 저녁을 먹은 후, 오늘의 숙소인 '양사재'에 도착했다. 본래 전주향교의 부속 건물이었던 양사재는 한옥 구조와 본 모습을 거의 갖춰 리모델링한 공간으로 군불을 때는 구들방이 남아있는 전통 한옥이다. 아이들은 처음 보는 한옥이라서 미닫이 문이 열리면 서로 큰 방이 되는 것이 재미있었던지 연상 문을 열고 닫고를 반복했고, 어머니들은 양사재에 들어서는 순간, 어릴 적에 외갓집이 생각난다며 잠시 향수에 젖는 듯 했다. 잠시 후 뒷마루에 모여 앉아 동네별 아이들이 마련한 장기자랑 시간을 가졌다. 전주시내에서 유명한 치킨이 상으로 준비되었다. 제일 처음 도촌동의 남매 도현이와 지은이가 오카리나를 불렀다. 이어서 제일 막내인 새현이가 노래를 불렀고, 도촌동 댄스퀸 혜수가 춤을 선보였다. 새은이와 아빠 황훈님은 특공무술 동작을, 지수와 지은이는 태권도의 기본품새로 장기자랑을 이어갔다. 은행동의 용구와 승구, 성경이와 웅렬이도



노래를 불러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맛있게 치킨을 먹은 아이들은 친한 친구와 함께 자겠다며 베개를 들고 이 방, 저 방으로 옮겨다녔고 아이들이 잠든 후 어른들은 따로 준비된 공간에서 함께 이야기 나눴다. 채성태 선생님도 저녁시간에 초대해 활동하면서 느낀 경험담을 들었다. 동네별 사랑방 식구들은 그동안 얼굴은 알고 있었지만 서로에게 궁금했던 점, 몰랐던 점을 묻고 대답하며 그렇게 가을밤은 깊어갔다.

전주시내투어

이튿날 아침, 전주에 온 이상 아름다운 명소들을 모두 둘러보고 가겠다는 마음으로 길을 나섰다. 오늘 우리를 안내해 주실 문화해설사님을 전주향교에서 만났는데, 때마침 인기드라마 '성균관 스캔들'이 촬영 중이었다. 촬영때문에 통제가 무척 심했지만, 문화해설사님의 설득으로 명륜당을 보고 나올 수 있었다. 이어서 한옥마을, 전동성당, 경기전의 주요한 곳들을 돌아다니며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다. 우리나라 역사, 유적과 유물, 전주



한옥마을의 명소와 유래 등을 들으니 더욱 더 신기하고 재미있었다. 한지공예로 유명한 '지담'에 가서 한지공예체험으로 거울과 사각접시를 만들었다. 전주에 다녀온 증거이자 다같이 떠난 여행의 선물이라고나 할까?

도촌동 섬말사랑방 6학년 기수와 은행동 풀장환상 2학년 웅렬이는 둘도 없는 단짝이 되었다. 기수 형아가 웅렬이를 너무 잘 챙겼다. 웅렬이도 기수 형의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았다. 기수 동생인 3학년 혜수는 웅렬이의 누나인 2학년 성경이와 친해져서 함께 잘 돌아 다녔다. 아마도 동성의 형제, 자매가 주는 유대감을 느끼게 된 듯 했다. 이후, 10월 말에 모든 동네 가족들이 성남아트센터에서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만나자마자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여전히 서로를 잘 챙겨주는 모습을 보니, 이 날 여행이 동네마다 준 또 다른 선물이 아닐까 싶다.

앞으로도 이런 기회들이 자주 생겨나 동네만들기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들은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 더불어 함께 단합하고 모이는 자리가 더욱 더 많아지길 바란다. 사람들은 자주 만나야 친해지고, 자주 부딪혀야 단단해지며, **사람들은 자주 만나야 친해지고, 자주 부딪혀야 단단해지며, 자주 봐야 정이 드니까.** 내년에도 올해처럼 동네별 행사에 서로 돕고 발표하며 축하해주는 모습을 꿈꾼다. 꿈이 깨질 걱정은 전혀 없다. 어차피 당연히 이루어질 테니까.





CHAPTER 5

'사랑마루' 그 외 활동 사랑마루의 또 다른 행적

2010 세계 마을만들기 포럼
수진동, 도촌동 이야기 책
온라인 뉴스레터
사랑마루 스텝들의 짧은 인사

동네만들기 사업에 대해 더 많이 알기 위해,
동네만들기 사업을 더 알리기 위해,
동네만들기 사업으로 더 가깝게 되기 위해
사랑마루는 이런 노력도 기울였습니다.



2010 마을만들기 포럼

<마을만들기, 문제는 주체다! 그 방법론과 대안 찾기>

2010 동네만들기 지원센터의 과업에는 ‘세계 마을만들기 사례’에 대한 연구가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가 과업에 포함된 배경을 간략히 설명하자면 1980~90년대 활발하게 진행된 국내 마을만들기 사업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활로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돌파구를 찾기 위해 중앙의 각 부처 단위사업으로 공동체 관련 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사회 각계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체성 회복에 대한 여러 시도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성남문화재단과 사랑마루 팀은 이러한 현 실정 속에 성남시가 우수사례로 변별력을 가지게 된 생활문화예술에 집중하였다. 세계 곳곳에서 생활문화예술을 매개로 공동체성이 회복된 사례를 탐색하고 그 사례를 토대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했다.

그동안 성남에 대해 애정을 가지고 정책연구에 참여하였던 경희사이버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강운주 교수님과 심보선 교수님께 이 연구를 부탁드렸다. 연구진, 사랑마루, 성남문화재단이 함께 5개월간 지속적인 회의를 통해 함께 고민했다. 그 결과, 1차와 2차로 나눠 포럼을 진행하며 1차에는 문화예술이



매개체 된 사례 중, 주민주체에 초점을 맞추고 2차 포럼은 사회통합적인 시스템 내에서 마을만들기의 바람직한 상을 그리기로 했다. 이와 맞물려 주민 주체가 활동하는 기제는 무엇인가, 매개자 및 지역활동가 교육의 근간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경영과 전수환 교수님도 매개자 교육과정의 자문으로 모셨다. 그 결과 10월 14일 1차 포럼 <마을만들기, 문제는 주체다! 그 방법론과 대안 찾기>, 11월 18일 2차 포럼 대화모임 <마을만들기, 우리가 희망이다>가 열렸다.

10월 14일, 1차 포럼이 열렸다. 정 석 교수님의 사회로 시작된 1차 포럼은 컨퍼런스홀을 채울만큼 많은 인원이 참석했다. 성남시청 관계자, 지역기관과 단체를 비롯하여 인천, 동해, 군산 등 전국 각지에서 참석했는데, 이 날은 ‘마을만들기 네트워크’의 정기모임일이어서 전원 본 포럼에 참여하기로 약속을 했다고 한다.

첫 기조 발제에 나선 단국대학교 사회학부 조명래 교수님은 ‘문화적 도시재생과 공공성의 회복’의 제목으로 문화특성화에 그치는 한국적인 도시재생을 꼬집으며 진정한 한국적 도시재생은 죽은 도시의 되살림이 아니라, 공공성을 담보해 살아있는 도시를 올바르게 살도록 하는 것이라 했다. 도시의 문화적 재생은 예술, 건축, 디자인 등의 문화언어들이 장소와 결합되어 실천적 언어인 특수한 문화 인프라로 실현되어야 한다고 했다. 문화 인프라의 구축을 위해 장소의 문화와 유기적으로 융합시켜내는 문화예술꾼, 장소화된 창조적 문화주체인 지역 문화주체의 형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이어서, 사랑마루 총감독이자, 성남영상공동체 늘봄 대표인 이상훈 님은 ‘지역예술가와 주민들이 바라보는 마을만들기’에 대해 발제했다. 먼저, 지역 예술가이자 활동가로서 느낀 ‘우리동네 문화공동체만들기 사업’ 수행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짚으며 지역활동가의 모임 자체도 공동체 활동을 통해 서로 격려하고 지원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했다. 두번째에는 주민들이 본 사업에 참여하는 이유, 사업에 대한 이해 등을 언급하면서 주민들에게 마을만들기 사업의 정확한 목적을 충분히 설명할수록, 주민 주체의 형성이 탄탄하게 된 예를 들어 설명했다. 따라서 마을만들기는 주민 주체의 커뮤니티 형성 사업이며 지속적이어야 하고, 매개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 더불어 문화예술 영역은 물론, 아동, 청소년,

체육, 장애인, 여성, 노인, 일자리, 교육 등의 복지영역과 기업 및 상가 등의 산업영역, 도로 및 시설 등의 도시계획 영역 모두가 포함된 마을만들기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의 핵심 키워드는 ‘고마움’이라고 말하며 관계 속에서 싹트는 고마움은 긍정적인 면을 찾는 힘이며 많은 것을 풍성하게 하는 한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는 말로 발표를 마쳤다.

세계 마을만들기 첫번째 사례로 강윤주 교수님이 ‘풀장환상과 풀장극장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제목으로 발제했다. 은행주공아파트의 풀장환상과 유사사례라 할 수 있는 독일의 할버슈타트 시립 실내수영장이 어떤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비교해보는 시간이었다. 두 곳 모두 버려진 공간의 재활용이라는 공통점에서 출발하였는데, 두 공간은 아파트 주민과 시 거주민들을 위한 공간이라는 점에서 공공성의 대상 범위가 다를 뿐, 모두 공공성을 위해 기획, 운영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발표했다. 다만, 풀장환상의 경우, 아파트 주민 전체의 합의와 지지를 받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 할버슈타트는 공공의 공간이라는 뚜렷한 인식 속에서 시민들을 위한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발하게 재활용되고 있었다. 앞으로 풀장환상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기울여야 할 노력으로 지속적인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쾌적한 환경의 모임장소 조성, 상주 운영인력 확보 등을 꼽았다.



두번째 사례는 심보선 교수님이 준비한 ‘미국 사례를 통해 본 문화예술을 통한 공동체 만들기’였다. 자율적인 미국의 공동체의 근간인 사회적, 역사적인 배경과 마을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여 연방정부예술기금 NEA(National Endowments for the Arts)와 젊은이 일자리 제공 정책인 CETA(Comprehensive Employment Training Act) 사례로 이어졌다. NEA의 설립으로 제도적 인프라가 마련되면서 지역의 예술가와 예술단체들은 CETA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에서 육성, 훈련되어 훌륭한 인적자원으로 활동이 가능해졌다고 한다. 자연스레 이야기는 공동체 예술(Community art)로 이어졌다. ‘The Great Wall of Los Angeles’라는 벽화작품은 400여명의 LA지역의 학생들과 그의 가족들이 1974년부터 199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참여한 결과물을 예로 들면서, 이 벽화를 그리기 위해 대규모의 주민 참여와 전문가들의 협력, 지역 및 중앙정부, 공공 및 민간들의 유,무형의 지원이 수반되었다는 점이 큰 특징이라고 했다.

뒤를 이은 토론 시간에서는 지역에서 긴 활동을 하고 있는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발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며 자유롭게 진행되었다. 공감하고 있는 깊은 고민들을 이야기하고 함께 토론하는 모습을 보며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과 마음 속에 끈끈한 연대감이 생



기는 듯 하다. 함께 가는 길동무가 있다는 느낌, 이러한 동력이라면 잘할 수 있겠다는 느낌. 귀한 감정을 느끼며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었다.

(11월 18일에 열린 2차 포럼관련 내용은 ‘아트뷰 12월호’에 실린 성남문화재단 문화사업부 유상진 과장의 글을 참조하기 바란다. 1,2차 포럼의 자료집은 성남문화재단 웹사이트 자료실에서 찾을 수 있다.)



수진동, 도촌동

이야기책

2010년, 수진동과 도촌동에 사는 주민들의 구술 생애 인터뷰를 바탕으로 2권의 이야기 책이 만들어졌다. 앞서 2009년 ‘상대원 사람들 이야기’를 시작으로, ‘태평동 사람들 이야기’와 ‘은행동 사람들 이야기’가 간행된 바 있다.

각 동네별 이야기 책은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이 진행된 동네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이 주인공이다. 세대별, 주거연도별, 성별, 직업 등을 고려하여 인터뷰이를 선정하고 그들이 살아온 삶의 구술을 바탕으로 이야기가 탄생된다. 이야기를 읽는 독자들은 그 곳에 사는 사람들의 역사를 읽으면서 동네의 역사까지 유추한다. 우리들은 그 거슬러 올라가는 기억의 여정을 생생하게 목격한다.

“**우리의 삶**은 시작과 끝을 알 수 없는 파편들로 이루어진다.

삶의 파편들은 스토리텔링(이야기하기)을 통해 하나의 긴밀한 이야기(서사)로 만들어진다.

그 이야기는 **삶을 기억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이야기로 재구성된 기억들은 다시 삶 그 자체가 되어 버린다.

삶이 이야기가 되고, 이야기가 기억이 되고, 기억이 다시 삶이 되는 전화의 과정은 고리처럼 맞물려 있다.

따라서 **삶은 이야기이며 또한 기억**이 되는 셈이다.

삶이 곧 이야기이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말하고 싶거나 말해야 하는 삶에 관한 이야기 몇 개씩은 가지고 있기 마련이다.

(Everyone has some stories to tell)”

- 장노현, ‘수진동 사람들 이야기’ 서문에서

매해 이야기 책을 펴내는 이유는 명료하다. 이야기는 원시시대부터 공동체성을 강화시키고, 연대의식의 뿌리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했다. 내가 사는 터전에서 앞서 살았던 조상님들이 쌓아왔고, 현재 살고 있는 동시대 사람들이 쌓고 있는 동네의 역사를 간직하고 계승해주기 바라는 마음에서 이다. 또는 논픽션이라는 실제 상황의 무한한 가치와 텍스트 시대의 자료화가 맞물린 결과물이기도 하다.

앞으로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가 진행되는 곳마다 펴낸 이야기 책이 시발점이 되어 갖가지 재미난 일들이 생기길 바란다. 동네소식지가 주민들의 손으로 만들어지고, 동네가 배경인 영화가 촬영되며, 주민들이 주인공인 만화가 그려지면 진정 동네 중심의 공동체가 되는 그 날이 오리라고 본다.



온라인 뉴스레터

매월 동네별 소식과 행사를 알리는 온라인 뉴스레터를 발행하여, 수신을 원하는 약 200여 명의 사람들에게 보냈다.

동네만들기 사업을 하면서 사랑마루 및 각 동네별 사랑방과 네트워크를 가진 기관 및 단체, 작가들, 사업 참여자, 참여자가 추천하는 사람들이 수신 대상자였다.

2010년도에 총 8편의 뉴스레터가 발행되었으며

사랑마루 블로그와 카페에 동시에 게시했다.

상대원시장
신나는 상대원방죽국
'월드방'
2010 월드방 송년회



도촌동 설맞사랑방
크리스마스 송년회



12월 25일 저녁, 설맞사랑방 가족들이 모여 2010년 크리스마스 송년회를 열었습니다.

풍선과 예쁜 양초로 꾸민 예쁜 공간에서 가족 장기자랑, 아이들의 클레이만들기 체험, 크리스마스케익 커팅도 했고 재미난 레크리에이션을 하면서 크리스마스 밤은 길어만 갔지요. 설맞 이백, 임마, 아이들 모두가 모여서 더 즐거운 자리였습니다.

겨울에도 설맞사랑방은 쉬지않습니다. 행복충전 100%인 설맞사랑방 이야기는 cafe.naver.com/dochonlove 에서 보실수 있어요.

사랑마루 스텝들의 짧은 인사

이상훈
(총감독·은행동
플장환상팀장)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 사랑마루의 2010년 활동을 마무리 하며, 함께 했던 여러 가지 활동과 고민하던 것들이 영화의 잔상처럼 스쳐갑니다.

사랑마루 팀원들과 동네 운영위원을 비롯한 주민들, 성남문화재단. 그리고 동네 만들기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조언해주신 교수님들과 지역 단체 활동가 등 참으로 많은 사람들과 함께 했던 2010년 한 해는 좀 더 폭넓게 동네를 바라보고, **더불어 살아가는 생활을 찾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올 한해는 지금까지 문화예술을 매개로 '동네 만들기' 사업이 진행되어 온 성과를 바탕으로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복지, 체육, 사회적 기업 등 보다 다양한 영역에서 이웃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주민들의 창조적인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주민 주체의 커뮤니티 활성화가 성남 지역의 화두가 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된 것은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각 동네 운영위원을 비롯한 주민들과 함께했던 이러한 실천과 모색의 노력은 우리 동네를 보다 행복한 삶의 공간으로 바꾸어가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바쁜 생활 속에서도 좀 더 따뜻한 동네를 만들어 가고자 헌신과 애정으로 노력해주신 각 동네 주민 여러분들과 많이 부족함에도 믿고 함께 해 주었던 사랑마루 팀원들을 비롯해 본 사업에 참여한 모든 작가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10 동네만들기를 마무리하고...

작년부터 도촌동 담당으로 대부분 도촌동에서 활동을 하면서 간간히 다른 동네의 공간 꾸미기에 참여했다. 올해 프로젝트 계획에 종종 어긋나는 의견을 제시하고 진행했다. 그럼에는 나의 소신이 있었지만 그 의견을 받아주고 믿어준 사람마루 멤버들의 포용에 감사한다. 성남문화재단의 유연해진 의견 수용도 올해 활동하는데 힘이 되었다. 그리고 이화섭 작가, 정삼선 작가의 능동적 행동과 무한 능력을 재차 확인함으로 어떤 작업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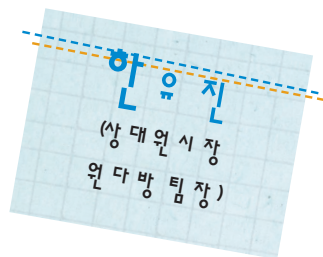
올해 가장 크게 느낀 것은 도촌동 주민의 열정이다.

그 열정으로 어린이 벼룩시장과 마을축제 등을 잘 치러낸 것에 놀랐고 자랑스러웠다.

동네만들기 사업이 진행된지 3년. 겉으로 보기에 상대원 시장은 3년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변한 것은 없다. 좁은 골목과 언덕길. 입구의 변화함과 삼거리 아래쪽은 한산함. 두세집 정도가 주인이 바뀌었을뿐 조그마한 시장골목을 어디를 다녀봐도 별반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다.

올 한해도 이곳 상가들을 수없이 드나들었다. 몇번인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수십번 드나들었던 것 같다. 나 뿐만이 아니라 방송국의 DJ들도, 원다방 운영위원장인 부흥상회 사장님도 전에 없이 상가들을 돌아다닌다. 모두들 무슨 마음으로 그랬는지 모르겠다. 본업을 두고 바쁜 시간을 쪼개어서까지 꼭 상대원 시장을 들러야 하는 이유가 뭐였는지 시간이 지나고 나니 나도 궁금해진다.

결국 이 분들을 움직인 것은 마음이었다. 장사를 하듯이 수지타산을 맞춘 것이 아닌 행동이었기에 그 마음에 **소중한 뭔가가** 있었을 것이고, **그 속에 우리가 찾는 것이 있지 않나** 생각해 본다.



상대원 시장뿐만 아니라 도촌동, 삼평동, 은행동 등 마을만들기 사업을 했던 곳들이 그런 마음들이 모여서 제각각 동네의 색깔들을 찾아가고 있다. 시장의 라디오 방송, 아파트 단지의 풀장, 작은 어린이 도서관, 아이들의 축제..... 같은 형제도 제각각의 성격과 색깔이 있듯이 사람들의 모임인 집단에게도 개성과 색깔이 있음은 당연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성남은 구시가지와 분당이라고 하는 두가지 색깔밖에 보이지 않았다. 문화를 매개로 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은 성남이란 곳에 더욱더 **다양한 색을 만드는 작업**이라 생각한다.

일년이란 시간이 쉽게만 넘어가지는 않았다. 동네 사람들과 서로 대립점에 서 있을때도 있었고 오해와 의심의 눈초리도 많이 받았으며, 미운 사람들이 생기기도 하였다. 또, 지원의 미흡함에 아쉬울때도 많았다. 그래서 이사업이 일년을 주기로 진행되는 단기사업이 아니라 긴 안목을 가지고 활동가들이 안정되게 사업할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만드는 일은 시간이 많이 들기도 하며, 불안정한 상황에서 이사업에 매진하는 일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소망하기를 더 좋은 작가들이 많이 발굴되고 마을만들기 사업이 더욱 확대되고 안정화되어 성남이란 곳이 다양한 색깔로 넘치는 살기좋은 문화공동체가 되기를 바래본다.

별써 4년째입니다. 앞서 2년은 사랑방문화클럽의 책을 썼고, 2009년에 이어 올해는 사랑마루 책을 쓰고 있습니다. 매년 연말연시는 원고 때문에 더욱 바빠집니다. 하나, 둘씩 신년으로 약속을 미루면서 1년을 정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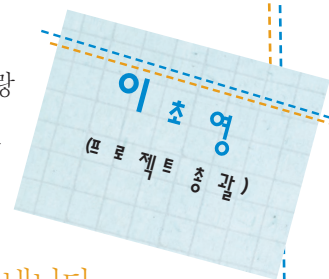
성남 각 **동네에 녹아있는 1년간의 시간, 함께 나눈 1년간의 수다,**
도모했던 일들이 맺은 1년간의 결실을 정리하고 담아냅니다.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생각과 생각이 거듭되면 마음 깊은 곳에 단 한 마디만이 남습니다.

‘고맙습니다.’ 뭔가 조금 모자란 느낌입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이것도 흡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이 표현도 다소 부족하지만 이 만큼만 표현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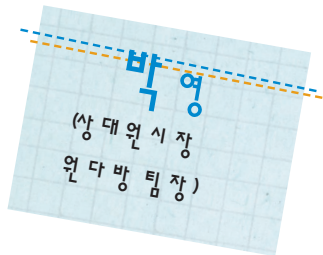
처음으로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함께 하게 되어 즐겁고 **뜻깊은 시간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지역 공동체'에 관심을 두고 일을 시작한 저를 따뜻하게 품어주신 사랑마루 스태프 분들과 동네 주민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새로운 많은 일들을 경험하며** 마음 편히 일할 수 있

었어요. 연극을 하며 공동체라는 단어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는데, 사실 '공동체'가 무엇인지는 제대로 생각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저 사람들과 함께 연극을 하며, 진정한 소통을 경험하고 싶었던 것이 제 욕구였던 것 같아요. 마을 만들기를 시작하면서 '공동체'가 무엇일까에 대한 진지한 질문부터 시작할 수 있었어요. 지역 공동체를 바라보는 여러 시선들을 보면서 다양하게 정의되고 접근되는 공동체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었거든요.

이제 막 시작하는 일이라서 적응하기에 바쁜 한해였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는 몸을 부딪히며 일어나는 삶의 경험이라는 것을

가장 크게 배울 수 있었어요. 아무리 머리로 생각하고 예상해도 관계 안에서 벌어지는 삶의 또 다른 모습들은 경험해내야지만 알 수가 있더라고요. 이것이 마을 만들기 사업의 묘미라고 생각해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 물음표를 만들어내고, 그 물음표를 지나 느낌표를 만나게 되는 여정...이것이 제가 무대라는 한정된 공간으로부터 더 넓은 마을로 발을 옮기게 된 이유인 것 같아요. **마을 만들기 사업이 조금 더 주민들 삶 속으로**, 주민들의 서로 주고받는 웃음과 마주잡는 두 손 안에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천히 가다보면 어느새 '마을 만들기'를 외치지 않아도 우리는 알콩달콩 마을 안에 살고 있겠죠. 내년 사업은 어떻게 진행될지 기대해요.



이 일을 하면서 참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

"아직도 세상에 이렇게 따뜻한 사람들이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든 적이 많다. 마을만들기 사업은 참여자들이 돈이 생기는 일도 아닌데다가 강제성을 지닌 사업도 아니다. 때문에 더욱 즐거워야 하고, 참여자가 행복해야 한다. 하지만 **즐거움과 행복함**을

위해 뭉친 이 좋은 사람들 사이에도 충돌이 일어나고 오해가 생겨났다. 그런 오해들은 참여자들의 열정과 만족감을 꺾는 가장 큰 요소로 작용한다. 이러한 오해와 충돌은 어디서 생겨나는 것일까? 내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모두가 '나름의 상식에서 행한 어떤 작은 행동' 때문이라는 생각을 해봤다. '상식'은 누구나 일관되게 가지고 있는 기준이라고 생각하지만, 모두의 '상식'은 그 사람의 수만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의 '상식'에는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행한 어떤 작은 일들이 상대방에게는 상식이 아닌 과정이 반복되면서 충돌과 오해로 이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상식은 모두의 상식이 아님을 알고, 항상 같이 소통하고, 배려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번거롭고 힘든 과정은 꼭 겪어야 하는 걸까? 대답은 '그렇다!'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어떤 광고의 카피처럼 **'같이의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이다.

마을만들기 사업의 도큐멘터로 참여한지도 올해로 3년째에 접어든다. 그 동안 우리가 꿈꾸는 '동네'에 대해서 단어와 문장으로는 정의해 왔지만, 내 머리 속에 선명하게 그려 보지는 못 했었다. 하지만 이번 섬말 사랑방을 취재하면서 직접 눈으로 본 광경들을 우리가 꿈꾸는 '동네'의 모습이라고 이제는 선명하게 그려 볼 수 있다. 이웃의 아이도 내 아이처럼 같이 쟁긴다.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이웃과 같이 나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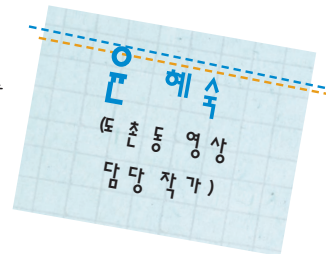
즐거움의 일이 있으면, 모두가 같이 한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정말 바라던 이웃이고, 마을이었구나 라고 깨닫는다.

앞으로도 오해와 충돌은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보다 같이해서 더 큰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내 머리 속에 선명하게 그려지는 그런 동네들이 더욱 늘어날 것이다.

2010년 사랑마루에서 마을 영상을 맡은 윤혜숙입니다.

다른 사랑마루 식구들처럼 자주 동네에 찾아가지 못하다가 뼈쪽 얼굴 내미는 것 같아 조금 쑥스럽네요. 그래도 태평동, 은행주공 아파트, 상대원시장 그리고 도촌동까지 4년 동안 한 발 살짝 걸치고 왔으니 마을사업과 인연이 깊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흔히 삶을 중심으로 생활공동체를 만드는 사업을 일컫는 말이지요.

그런데 마을만들기를 이야기할 때마다 묘한 감정을 느낍니다.

아니, 마을이 없었던 말인가. 우리가 뭐 건설업체나 행정기관도 아닌데 마을을 어떻게 만들어? 게다가 우리 동네가 아닌 남의 동네에서 말이죠. 이미 마을인 곳에서 마을을 만든다는 것. 참으로 건방진 이야기 일 수 있는데 많은 주민이 지지해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것을 보면 건조한 세상에 대한 반작용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마을만들기, 2010년에도 마을만들기에 많은 주민이 함께 해 주셨습니다.

아름다운 뜻을 세우고, 이루는 것은 결국 **당신!**

지난 한 해 그 뜻을 함께 가꾸어간 은행주공문화배움터, 상대원시장 원다방, 섬말사랑방 식구들과 사랑마루 식구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2011년에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살기 좋은 마을의 향기가 더 멀리 멀리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제작에 도움을 주신 섬말사랑방 기수맘 송금숙님, 들직 기수, 감직 혜수, 그리고 임종석님께 감사의 말 전합니다. (무슨 연말 시상식 소감 같지요? 함 해보고 싶었습니다.)

동네만들기 지원센터가 벌써 2년째 좋은 성과를 남기며 마무리되고 있군요. 동네에서 우리의 삶을 살맛나는 곳으로 바뀌가는 작업이 참으로 녹녹치 않은 일임에도 **너무도 열정적인** 분들의 땀방울로 구석구석이 **하나씩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2005년에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장기계획을 세우면서 2020년쯤 되면 성남의 동네들이 **자신만의 독특한 색깔**을 가지고, 주민의 문화공동체가 살아나는 모습을 그려 보았

지요. 그 1단계 3년동안 골목길(태평동), 아파트(은행동), 공단 기업(상대원공단), 시장 상가(상대원시장)의 시범사업은 많은 우여곡절과 시행착오 속에서도 소중한 교훈들과 씨앗을 잉태하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펼쳐지고 있는 '동네만들기 지원센터'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2단계 5개년 계획입니다. 5년 동안 '문화공동체 시스템 만들기'를 통해 48개동이 주민 스스로 동네만들기를 펼쳐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과연 창출할 수 있을까요?

이제 2년차를 마무리하고 3년차의 매우 어려운 지점을 향해 큰 한발을 내디딜 시기가 다가오는군요. 3년차는 아마도 지속적 시스템의 골간이 무엇인지 드러나고 뼈대를 세우는 작업이 될테니까요.

저는 아마도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동네에서 우리의 삶, 지역을 바꿔가려는 주민분들과 지원센터의 일꾼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분들의 **노고와 열정**, 그리고 지역과 동네를 위한 헌신적인 노력, 무엇보다도 즐겁고 살맛나는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땀흘리는 얼굴들이 떠오르기 때문일** 겁니다.





현장스케치 V 작은 발표회

어느 텃, 11월이 되었다.

‘동네만들기 지원센터’ 프로젝트의 마감기한은 10월 30일. 하지만, 이런저런 마무리가 남아서 11월은 마무리의 달로 생각하고 꾸준히 모여서 회의를 했다. 각 동네의 겨울나기, 내년 사업을 지속하는 방법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눴다. 은행동 풀장환상의 경우, 문화나눔을 이어가기로 했으며, 섬말사랑방은 도서관에서 열릴 겨울 프로그램을 준비중이라는 좋은 소식이 전해져 왔다.

11월 13일은 전체 동네 사람들이 모두 모이는 사랑마루 작은 발표회가 도촌동 주민센터 강당에서 열렸다. 약 40여명이 참석했는데, 이 날 미리 일정이 잡혀있던 가족들이 많아서 참여율이 높지 못했다. 10월 말에 각 동네별 발표회가 있었기 때문에 11월 말에 작은 발표회까지 기간이 너무 길어져 중순께로 일정을 정해서 나타난 안타까운 결과였다. 하지만, 오늘 모인 사람 모두 즐거워지리라!

작은발표회 시작 전, 도촌동 섬말사랑방 어머니들과 아이들이 와서 많은 준비를 도왔다. 이정은 운영위원장님, 송금숙 총무님, 정승자 님, 박선헌 님께서 장소를 함께 꾸몄고, 도촌동 섬말사랑방의 생태 기록책, 탐험 결과물, 인형 등을 전시했다. 은행동 풀장환상의 이영란 총무님과 김현주 선생님도 오셔서 지금까지 그린 생태 그림을 한쪽에 전시했다. 은행동의 경우, 이미 4년차 그림 솜씨인만큼 도촌동 어머니들은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도촌동 주민센터 강당의 왼쪽은 전체가 유리창으로 되어 있다. 그 유리창에 지난 1년간 동네별 크고 작은 행사부터 교육, 활동 모습이 담긴 사진 500장을 붙였다. 각 동네별로 1년간 활동 모습이 고스란히 남겨져 있어 사진 보기에 여념이 없었다. 행사가 끝나면 가져가고 싶은 사진은 가져가도 좋다는 말에 아이들은 어떤 사진들이 있는지 더 유심히 보았다. 또, 동네별 활동 사진이 인쇄된 전지 사이즈의 2011년 달력을 인쇄해서 나눠드렸다. 김미숙 님은 ‘윤성이 얼굴이 나온 달력이니깐 방에 꼭 붙여놓아야죠.’ 하셨다. 행사 시작 전, 강당 앞 공간에서 약간의 다과와 함께 사랑마루 팀이 선물로 준비한 에코백 선물하기를 진행했다.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이 담긴 에코백 앞에는 곤줄박이 새, 진박새, 숨다리 꽃, 다래나무가 그려져 있었는데, 꽃과 새를 직물용 펜으로 색칠하여 선물하고 싶은 사람에게 선물하기로 했다. 정승자 님은 이정은 운영위원장님께 선물했고, 혜수는 엄마 송금숙 님께 선물했다. 원다방 장미라 방송국장님 아들 무현이도 예쁘게 색칠하여 엄마에게 선물했다. 강당 안은 방명록 대신, 나무줄기가 직접 그려진 게시판 위에 본인이 적은 소망 메모를 잎사귀처럼 붙이기 했다. 아이들은 ‘사랑마루 파이팅’, ‘섬말 사랑방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좋은 사람들이다.’ 등을 적어서 붙여주었다.



이 상 훈 총 감독 의 사 회 로 작은 발표 회 가 시작 되었다.
 첫 순서로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시작과 현재 모습을 찍은 영상을 함께 감상했다.



현장스케치

첫 사업지 태평동의 모습, 풀장환상, 원다방, 섬말사랑방의 모습까지 5년간의 시간이 담겨있었다. 영상관람이 끝나고 성남문화재단 노재천 예술국장님과 이석환 도촌동 동장님의 축하인사를 청해들었다.



노재천 국장님은 오늘 이 자리는 주민들의 노력으로 일군 값진 결과이며, 미래에 성남시 모든 동네에서 이런 결실을 맺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다. 이석환 동장님은 오늘의 작은발표회가 도촌동 주민센터의 개관 후, 센터 강당을 주민들에게 개방한 첫 행사라고 하시면서 섬말사랑방의 활발한 활동에 감사하며, 앞으로 더욱 더 많은 활동을 통해 도촌동을 더욱 아끼고 사랑해달라고 부탁하셨다.



동네별로 준비한 행사의 시작은, 원다방 장미라 방송국장님의 '여는 시'로 그 막이 열렸다. '마을 만들기 축제에 부쳐'라는 제목의 축시였는데, 동네에서 모인 모두의 마음이 변치않는 물이 되어 강을 향해 흐른다는 희망찬 내용이었다. 시어 하나하나, 한 연, 한 연이 동네만들기 사업의 의미를 너무 잘 담아내고 있었다. 고운 목소리로 직접 낭송까지 해주셔서 그 감동은 배가 되었다. 은행동 풀장환상의 총무 이영란 님이 나와서 오늘 이 자리의 소감과 인사말을 해주셨고, 원다방 인기DJ 이길순 엔지니어 님은 '원다방 공개방송' 형식으로 동네별 뉴스를 전해주셨다. 첫 코너로 게시판에 붙어있던 소망메모 몇 가지를 추려서 즉석으로 소개한 후, 10월에 있었던 동네별 발표회 이야기로 넘어갔다. 이 중에, 2010 도촌동 섬마을 문화축제에서 화려한 댄스를 선보인 '임혜수' 양에게 춤을 청해서 직접 보는 시간도 가졌다. 유연한 혜수의 춤 동작은 이미 모든 동네에서 알고 있다.

도촌동 섬말사랑방 이정은 운영위원장님의 소개에 이어서, 섬말사랑방 아이들이 준비한 동화연극 '구질 구질 꼬질꼬질'을 상연하였다. 주인공 동미로 분한 지은이, 엄마,아빠 도깨비로 분한 서현이와 대현이는 재미난 분장을 하고 무대 위에 나타났다. 박선헌 선생님이 잘 가르쳐주신 덕분에 아이들 모두 능숙하게

연기를 소화해내고 있었다. 섬마을 문화축제에서도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만큼, 상대원에서 놀러온 무현이도 꽤 집중해서 관람했다.

공식적인 발표회가 끝나자 아이들은 창가에 붙은 사진을 떼어내느라 정신없고 어머니들은 서로 함께 사진을 찍으며 오늘의 기억을 사진으로 남겼다. 섬말사랑방 기수는 사랑마루 스텝인 우리들의 독사진을 한 장씩 간직하겠다고 가져갔다.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준 박승현 문화연구부장님도 소소하면서 즐거운 자리였다며 동네별 운영위원들께 2011년에도 각 동네를 잘 부탁한다는 이야기를 전했다.



올해 작은발표회에서 특별했던 점은 섬말사랑방 아버님들도 자리를 함께 했다는 점이다. 동균이 아버님과 기수,혜수 아버님이 오셨고, 온 가족이 참여하는 새은, 새현이 아빠인 황 훈님께서 준비를 많이 도와 주셨다. 1년 만에 아빠, 엄마, 아이들, 가족 구성원이 모두 모이는 섬말사랑방이 되었다.

행사 장소 정리 후, 섬말사랑방으로 꾸미고 있는 5단지 1층에 모여서 음식을 사놓고 함께 이야기를 나눴다. 이 장소도 약간의 마무리공사가 끝나면 약 3주 후. 개관을 앞두고 있다. 은행동 풀장환상은 내년 봄까지 자체적으로 문화나눔을 진행할 예정이다. 상대원시장 원다방은 후원회를 조직하여 방송국의 자생력을 기를 예정이다. 삼평동은 2011년에 주민운영위원회 조직에 박차를 가하려 한다.



2010년 한 해 동안,
은행동에서
상대원시장에서
도촌동에서
삼평동에서
열심히 뛰어주신 운영위원들, 주민들께 무한한 감사를 드리며,

2011년 한 해에는.
‘마을만들기 축제에 부쳐’의 넷째 연처럼
“너와 내 마음이 묶인
우리라는 울타리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며 사는 동네”가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2010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동네만들기 지원센터 '사랑마루' 사업 참여자

총감독 이상훈

도촌동 팀장 박진영

상대원동 팀장 한유진

은행동, 삼평동 팀장 이상훈

코디네이터 박영

총프로젝트북 총괄 이초영

사랑마루, 원다방 프로젝트북 집필 이초영

도촌동 프로젝트북 집필 김소연

문화예술 매개자 교육과정 '함께 만드는 행복한 우리 동네'

자문 전수환

기획 및 진행 이초영

세계 마을만들기 포럼 '마을만들기 문제는 주체다'

연구 강운주, 심보선

기획 및 진행 성남문화재단, 김지훈

'사랑마루' 온라인 뉴스레터 담당 이초영

공공미술 담당

작가 이화섭

작가 정삼선

작가 고수철

도촌동 영상 윤혜숙

동네만들기 지원센터 '사랑마루' 사업 참여자

은행동 풀장환상

운영위원장 강현희

운영위원 이영란, 이정진

상대원시장 원다방

운영위원장 조길연

운영위원 이제근, 김승만, 방동환, 조병희, 한유진, 박승현

감사 박영출

실무위원장 박정숙

방송국장 장미라

엔지니어 이길순

자문위원 조광주, 지관근, 유근주, 김국남

원다방 DJ 박신명, 박인자, 장윤정, 장은화, 박인경, 김성훈, 손종구,

김두산, 박광천, 소병익, 성남방송고등학교 PD동아리

도촌동 섬말사랑방

회장 이정은 탈춤반 반장 황훈

총무 송금숙 비누반 반장 전인옥

서기 김미진 인형극 반장 박선훈

회계 이명진 생태반 반장 송금숙

협력기관 및 단체, 도움주신 분

은행동 _ 은행주공아파트입주자 대표협의회, 보탬미술학원

상대원시장 _ 상대원시장 상인회, 함께하는주부모임, 상대원 3동 주민센터, 주민자치위원회,
성남시 지역청소년 센터, 성남방송고등학교

도촌동 _ 도촌동 주민센터, 새날아동상담센터, 도촌지역아동센터, 도촌 YMCA,
섬마을 5단지 입주자대표회의, 도촌초등학교, LH 공사 도촌지구

삼평동 _ 보평초등학교, 백현마을 2단지, 봇들마을 7,8,9단지 입주자대표회의



성남문화재단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2010 프로젝트북
동네만들기 지원센터 '사랑마루 2'

